Weekly
공감

NO.233
Korea.kr/gonggam
2013.11.18

기획특집

세종시에 살어리랏다… 6개 부처 12월 이전

도로명주소 내년 전면 실시 "집 찾기가 쉬워졌어요"

"100세까지 스포츠를 마음껏"…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

세종시에서 '인생 2막'

장석춘
모든정보테크 대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신문
〈마중물소식〉 편집장

2008년 일산에서 세종시로 이사 와 예전에 없었던 감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가꾼 무공해 채소들로 채워지는 밥상은 진수성찬 부럽지 않고, 지역 명소인 운주산은 즐겨 찾는 집앞 마당입니다.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자족 기능을 위한 기틀이 하나 둘씩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날로 달라지는 위상에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가져봅니다.

2008년 12월, 15년 동안 살았던 일산 신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특별한 연고도 없는 조치원의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난 지 1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등 우리 세 식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낯선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작은 도시에서 '인생 2막'을 열어보겠다는 열망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전부터 구상했던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이웃 전동면 청송리에 주택을 지어 이주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자산을 얻었다고 할까요. 고불고불한 개미고개를 넘나들며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시골의 정취를 감상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반갑게 만나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또 다른 행복입니다. '역시 이곳에 오길 잘했어' 하는 마음에 정신도 건강해졌습니다. 열심히 텃밭을 가꾸며 얻어낸 무공해 채소들로 채워진 밥상은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혼자 즐겁게 사는 걸 넘어 이웃들을 위한 일을 맡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신문인 〈마중물소식〉의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 즐겨 찾는 장소는 운주산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운주산은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460미터라 그리 높지는 않지만, 찾는 발길이 예전보다 잦아졌을 만큼 명소가 되었습니다. 3킬로미터가 넘는 운주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되었는데, 둘레길이 있고 봄에는 진달래꽃으로 화전놀이 행사도 열립니다. 등산로 곳곳에 설치해 놓은 볏짚 새둥지 역시 신선한 볼거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는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기틀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유치하고, 읍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교 캠퍼스 설립, 의료시설 입주,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발전 양상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될 경우 지역 간에 괴리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종시의 항공사진과 영상물을 보며, 날로 달라지는 세종시의 위상에 자긍심을 가져봅니다. G

위클리 공감 2013.11.18 Korea.kr/gonggam | No.233 통권 334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50

52

06

56

기획특집

6개 부처 12월 이전… 기대 반 설렘 반 2014 세종시

국제평화유지활동

26

중점기획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실시

표지이야기

11월 13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객들이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선보인 서도호의 작품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을 관람하고 있다. 아파트 속에 한옥이 들어있는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11.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5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32호 〈편식은 나빠요, 체험! 튼튼 먹거리〉 기사를 읽고

장일동(부산시 북구 화명3동)

아직도 편식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프로그램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집에서 고치기 힘든 편식 현상을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 **답글** 나트륨 줄이기 교육 홍보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어린이 수준의 교육과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서울 지역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참여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변재원 주무관(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232호 〈'지문 사전등록제' 아시나요?〉 기사를 읽고

이주현(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여섯 살짜리 딸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찾았지만, 그 순간은 몇 년인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종종 미아를 찾는 현수막이나 전단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은데, 더 이상 이런 불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글** '지문 사전등록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파워블로거, 카페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어린이집 등에 직접 찾아가 팸플릿을 나눠주고 현장에서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 사업비가 늘어나 더 능동적인 홍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김은수 경사(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232호 〈2단계 정부세종청사엔 '새집증후군' 없다〉 기사를 읽고

정승환(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지난해 1단계 정부세종청사 이전 직후 근무자들이 한동안 새집증후군에 시달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단계 정부세종청사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답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입주 기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으며, 입주 기관들이 충분히 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완엽 사무관(안전행정부 청사이전사업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1,008번 실패해도 1,009번째 도전을 응원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KFC를 세운 커넬 샌더스의 뒤에는 늘 '실패'라는 단어가 뒤따라다녔습니다. 치킨, 비스킷을 무기로 잘나가던 '샌더스 카페'마저 25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의 나이 66세. 샌더스는 압력솥과 스파이시 소스를 싣고 미국 전역의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1,008곳의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1,009번째 식당에서 결국 성공을 이뤄냅니다.

재기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며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그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중소기업 재도전 정책 등 재기를 돕는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과정' 중 하나가 되는, 그런 기업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남형도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알림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위한 디자인 공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스포츠를 억제하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포스터 부문 : 불법 스포츠 도박 · 부정행위 등 스포츠 관련 불법 행위 근절 /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 방지 등 건전 레포츠문화 정착에 대한 표현
▶캐릭터(마스코트) 부문 :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상징하는 캐릭터(마스코트) 디자인, 불법 스포츠를 억제하는 캐릭터(마스코트) 디자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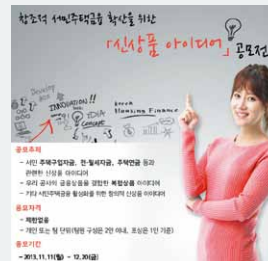
시상내역 ▶포스터 부문 : 최우수상 1점 상금 200만원
▶캐릭터 부문 : 최우수상 1점 상금 150만원
※그 외 시상내역은 홈페이지(www.cleansports.or.kr) 참조

응모일정 12월 15일(일)까지

응모방법 이메일(cleansports@naver.com)로 접수(제출 시 접수자 성함, 전화번호 필히 작성)

문의 클린스포츠서포터 캠페인 사무국 ☎ 02-308-0640

서민주택금융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주택금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관련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구성 가능)

응모주제 서민 주택구입자금, 전 · 월세자금, 주택연금 등과 관련한 신상품 아이디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을 결합한 복합상품 아이디어 등

시상내역 ▶대상(1팀) : 300만원, 입사 지원 시 우대
▶최우수상(1팀) : 100만원, 입사 지원 시 우대
※ 그 외 시상내역과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참조

응모일정 12월 20일(금)까지

응모방법 공사 홈페이지 '이벤트' 창구를 통해 아이디어 접수

문의 ☎ 02-2014-8649

낱말맞히기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33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25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서해 OOO에 위치한 우리나라 해병대 기지와 마을에 북한이 포탄을 발사해 해병대원과 민간인 등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 모내기나 김매기를 할 때 부른 조선 시대의 가사.
6 본동사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 보조동사.
8 산이 생긴 모양. "OO가 험하다."
10 이 나라의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11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

세로 풀이

1 급여 소득에서 원천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2 도시와 농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
4 경조사에 금품을 보내 도와주는 것.
5 사람이나 기계, 설비 등을 움직여 일함. "공장을 밤낮으로 OO하다."
7 어느 위치에서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안전 OOOO를 없애다."
9 "오는 12월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개 국책연구기관이 OOO로 이전하게 된다."

〈위클리 공감〉 231호(11월 4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2** 주치의 **5** 조부 **6** 성수기 **7** 연어 **8** 사발 **10** 판소리
세로 **1** 김치 **2** 주부 **3** 의성어 **4** 감기 **5** 조종사 **9** 발판

〈위클리공감〉 231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봉균(경기 안산시 상록구) 서은주(전남 구례군 문척면)
김은하(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이승현(서울 관악구 난곡로24바길)
최무정(충남 아산시 시민로329번길)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연합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공간

광화문에서 걸어서 10분… 도심 속 친근한 미술관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 첫날인 11월 13일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 리 밍웨이, 〈움직이는 정원〉.
3 최우람, 〈오페르투스 루눌라 움브라〉.
4 서도호,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5 필립 비슬리, 〈착생식물원(Epiphyte Chamber)〉.

경복궁 건너편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전통과 근·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테라코타·유리 소재의 현대 건물과 옛 기무사 자리의 20세기 초 벽돌 건물, 그 뒤로 조선시대 국왕의 친인척 사무를 담당했던 종친부의 전통한옥으로 이뤄져 있다. 근대식 붉은 벽돌의 옛 기무사 건물이 입구에 수문장처럼 서있다.

연면적 5만2,125평방미터(약 1만5,768평)로 잠실구장(1만3,880평방미터)의 약 4배, 지상 3층·지하 3층 규모다. 공사기간 약 4년, 총 사업비 2,460억원이 들었다.

11월 13일 첫 관람객을 맞은 서울관은 앞으로 도심 속 일상의 친근한 미술관으로 대중의 삶과 예술을 밀착시킴으로써 진정한 문화융성의 시원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박미숙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잡기를 기대"

박 대통령, 개관식 축사… 서세옥 작가 등 작품 대량 기증 뜻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경.

서울 도심에 자리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11월 13일 문을 열었다.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옛 기무사 터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간결한 현대식 건물에 조선시대 종친부 건물을 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도록 만들었다.

12일 열린 개관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인사동과 북촌, 삼청동의 화랑가와 어우러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문화융성"이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융성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개관을 기념해 5개 주제의 특별전을 연다. 특별전은 중앙의 전시공간인 '서울박스' 및 8개 전시장에서 열리며 5개 주제별 국내외 작가 70여 명의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실내로 들어서면 '서울박스'에 2개 층 높이로 설치된 '푸른 집'이 한눈에 들어온다.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이며 2012년 삼성미술관 리움 개인전 등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서도호 작가의 작품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으로 양옥이 한옥을 감싸고 있는 2중 구조의 집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관의 공간 특성을 상징하듯 작가는 1991년 미국 유학 초기 거주했던 3층 아파트와 자신이 살았던 서울 성북동 한옥의 구조를 결합시켜 높이 12미터, 너비 15미터의 대형 설치작품을 내놓았다.

문화 소외계층 매월 초청해 무료 관람·해설

서울관은 개관 특별전시와 함께 영화·공연 프로그램 및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풍성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학생가장 등과 같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초청 행사를 매월 개최해 무료 전시관람 및 해설과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관 개관을 기념해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 격인 서세옥 작가와 김영중, 정탁영, 정영렬, 송수남 작가의 유족이 작품을 대량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한국화가 서세옥은 본인의 전 작품세계를 시대별로 망라하는 100여 점의 주요 작품을 기증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기증 예정 작품들은 수집 심의를 거친 후 특별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G

글·박미숙 기자

광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공휴일은 제외), 1일 4회(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4시) 운영 / 정류소 위치 : 서울관·과천관 셔틀버스 정거장, 덕수궁 대한문 앞 시티투어버스 정거장 공동 사용

사전예약제 개관 초기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 시행

- **시행 기간** 2013.11.30까지 시범운영
- **예약 방법** 홈페이지 www.mmca.go.kr
- **입장료** 7천원(통합입장료), 매주 수·토요일 오후 6~9시 무료
- **문의** ☎ 02-3701-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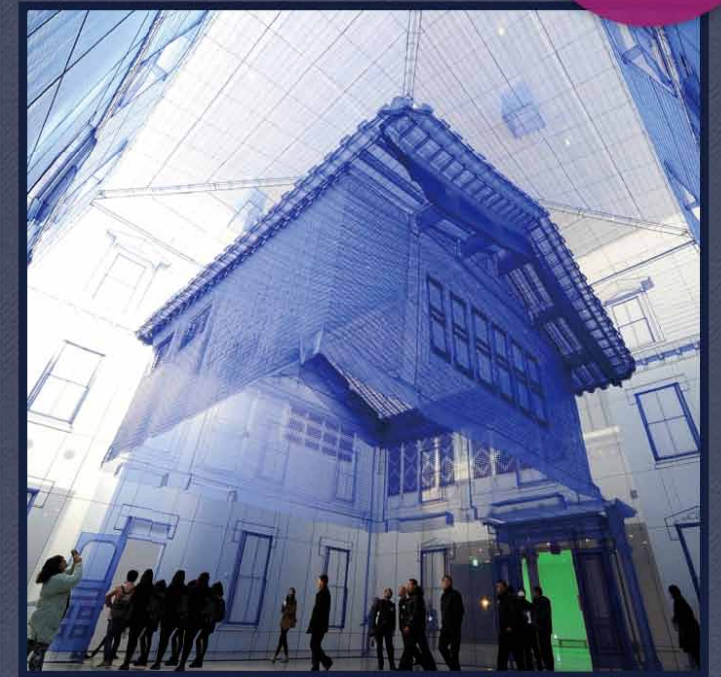
공감포토 7회 다른그림찾기 이벤트

공감포토가 소개하는 사진을 감상하며, 사진 속 다른 부분 3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다른그림찾기" 라는 제목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24일까지 webmaster@korea.kr 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3만원 / 10명)**을 보내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전시된 서도호 작가의 작품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옛 국군 기무사령부터에 건립되어 지난 13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문을 엽니다.(매주 월요일, 1월1일 휴관)

더 많은 사진을 감상하시려면 공감포토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photo.korea.kr

이벤트 5회 당첨자 발표

박길자	011-7**-38**	민선주	010-94**-62**	이수연	010-87**-14**	김성희	010-63**-43**	김경희	010-77**-70**
김창원	010-40**-62**	홍혜숙	010-85**-95**	박형정	010-95**-44**	우향화	010-88**-75**	박명선	010-29**-75**

경품은 매월 말일 일괄 발송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러 단독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러 협력, 새 유라시아시대 만들자”

서울서 양국 정상회담… 극동 시베리아 개발 촉진할 ‘공동 투·융자 플랫폼’도 구축

나진-하산 연결철도 및 나선 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대 고효율 농업시범구
종합 목재가공단지
웅상항 : 산적화물항 건설

비파도
15만㎢ 해양 레저시설과 고급빌라촌 등 복합 해양리조트 개발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부산물 가공
선봉항 : 화학제품, 산적화물항으로 건설

창고보관 및 물류
첨단기술
장비제조
의료 및 식료가공
나진항 : 종합적 항구로 건설. 선봉항·웅상항을 보조로 나진항을 지역적 교통운수중추 형성

청진
민용비행장 계획, 나진~청진고속도로 통한 나진경제무역지대와 연결, 지역민항운수 수요 해결

나선경제무역지대(약 470㎢)
중국, 러시아와 육로 및 해상으로 연결된 지대적 특성을 발휘해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 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 발전 예정. 미래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중심(16개동 규모의 대형 국제무역센터), 지역적인 관광중심 등으로 건설 계획.

나선특별시(2010년 직할시에서 특급시로 승격)
- 면적 746km²
- 총인구 약 20만명(2012년)
- 동 20개
- 리 12개

자료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주변 주요 4국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등 양국간 주요 실질협력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양국간 인적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있어서 양국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유라시아지역 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제협력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와 같은 우선 협력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의 조선산업 육성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토대로 조선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공동 투·융자 플랫폼’도 구축됐다. 이 플랫폼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이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 에너지, 석유화학·정유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출금융 등을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이뤄졌던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북극 관련 협력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의 환경보존을 위한 양국간 협력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라시아 대륙 연계성 확보의 토대가 되는 철도·교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콜코보 혁신 연구단지 내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해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인적·문화교류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러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사증면제 협정’은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 60일 동안 무사증 입국·체류·출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국 내 문화원 및 문화원 지원 설립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한·러 문화원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

안보협력 박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도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이 구상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G

글·김혜민 기자

벨기에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8일 유럽연합(EU) 본부에서 헤르만 반 롬퓌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사진 왼쪽), 조제 마누엘 두라웅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EU는 미래 함께 열 성숙한 동반자"

박 대통령, FTA 효과 극대화 위한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벨기에·유럽연합(EU) 등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11월 9일 귀국했다. 6박8일간의 이번 순방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유럽지역 방문으로 취임 첫해 미국·중국·러시아·G20·동남아 정상외교에 이은 핵심 외교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둬 '세일즈외교'의 지평을 유럽 권역까지 확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 외교 박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창조경제 및 문화 교류·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했다.

또 한·프랑스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여러 양해각서(무역보험공사·프랑스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프랑스 소시에떼 제네랄 은행 등)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동반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비롯한 창조문화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1월 4일 파리의 프랑스기업연합회(MEDEF) 회관에서 열린 한·프랑스 경제인간담회 기조연설을 20분간 프랑스어로 진행,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영국에서는 3박4일간 버킹엄궁에서 머물며 영국 왕실로부터 최상의 환대를 받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창조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원자력에너지 연구개발 및 원전건설·해체 관련 협력, 문화·창조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양국 정부 및 유수의 연구기관·대학 간 기초과학·에너지기술·정보통신기술(ICT)·문화산업 등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1월 7일 벨기에 방문에서는 엘리오 디 루포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필립 국왕 주최 만찬 등을 통해 양국이 가진 강점을 살려 창조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브뤼셀의 EU 본부도 방문해 헤르만 반 롬퓌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라웅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갖고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그간의 한·EU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0년)에 기초해 번영된 미래를 위한 양자 차원의 미래 비전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 안보 및 다자협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조경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하고, 한국의 '창조경제'와 EU의 '2020전략' 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호혜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안보·외교 이번 순방에서 이룬 외교적인 성과도 많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순방 중 정상들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얻어냈다.

박 대통령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향후에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캐머런 총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영국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유치 정상회담장 바깥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박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 기간 중 독일의 바스프(화학)와 지멘스(전기전자), 이탈리아의 베르살리스(합성고무), 프랑스의 LFB(국영제약), 벨기에의 솔베이(화학) 등 EU의 대표적 기업 5개사로부터 총 3억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럽의 중소기업 전용 국제공동 기술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E☆2)' 회원 가입을 결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레카 사무국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비유럽국가로서는 최초로 유로스타2 정회원국에 가입하게 됐으며, '글로벌 히든챔피언'의 산실인 독일·영국·프랑스 등의 중소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G

글·박경아 기자

창조경제와 EU '2020전략' 유사 정책 분야

한국 창조경제 전략	EU Smart Growth
•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 ICT 첨단연구·이노베이션 촉진
• 신산업·신시장 개척 – 비타민 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 EU 공동체에 대한 ICT의 기여 – 고령자·장애인·환자 보호 인터넷 활용
• 창의인재 양성	• 역동적 청년프로젝트

글로벌 파트너십… 한국경제 미래 밝다

유럽과 민간교류 채널 대폭 확대… 혁신 위한 경제협력 확대 길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서유럽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유럽지역 양자 방문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미국·중국·러시아·동남아·유럽 등 핵심 외교권역에 대한 방문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서유럽 3개국에 한정되었으나 그 의미는 유럽 전 지역 방문이라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와 영국은 주요 8개국(G8)과 주요 20개국(G20)의 회원국이며 유럽연합(EU)의 중심국이다. 또한 벨기에는 유럽 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강소국의 전형으로 유럽 내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 방문은 현재 28개 회원국을 거느린 EU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대화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유럽 입장에서도 한국 정상의 방문은 한국이 갖는 정치·경제력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년간 EU 회원국은 유럽 통합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정 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와 함께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현재 간신히 경기가 회복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적을 거둬온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유럽 입장서 한국은 기술력·시장 모두 갖춘 좋은 파트너

또한 한국은 EU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역외국과 추진한 최초의 포괄적 FTA 상대국이다. 현재 내수회복이 약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 EU의 주요국은 FTA 확대정책을 지지하고 제3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은 기술력과 시장을 모두 갖춘 좋은 파트너임에 틀림없다.

이번 순방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유럽과의 민간교류 채널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의 기관 간에는 30여 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민간협력 채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국 방문에 맞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산업계와 영국의 민간은행 및 금융 관련 기관 간 11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무대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에서도 4건의 금융 관련 MOU가 체결되었다.

둘째, 한국과 서유럽 국가 간 경협 확대를 위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핵심 정책의 상호 결합을 시도했다는 점은 향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이 일시적인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경협 확대를 선언하더라도 실제로 협력 의제의 수와 중요성이 적을 경우 경협은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양국 간 정책관심도가 상이할 경우에도 정상 간 선언적 의미의 경협의지 피력은 구체화되기 어렵다.

이번 방문에서는 영국과의 금융협력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간 MOU를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 벤처캐피털 투자 등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설정되었다. 인프라와 자원에너지 개발은 물론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확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들을 향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기술 강국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경협은 기존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경협과는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 이상 추격형 성장전략만으로는 개도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선진화만이 개도국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핵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G

글 ·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럽서 꽃피운 창조적 문화마케팅 외교

"문화콘텐츠는 협업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할 매개체" 재확인시켜

한국은 지금 문화콘텐츠를 디딤돌 삼아 창조경제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서유럽 순방은 창조경제의 열매를 수확하게끔 노력하는 문화세일즈 외교이기도 했다. 이번 프랑스·영국·벨기에 방문을 보면 '주식회사 대한민국' 브랜드를 드높이고자 실행한 방법 자체가 문화마케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월 3일(현지시간) 동포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개봉했고,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프랑스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콘텐츠 간 융합, 기술과 문화 간 융합이 양국 사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 성과물들이 양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 첫 일정이 바로 '한국 드라마 파티'였다. 순수 한류 팬클럽들이 모인 '봉주르 코레'가 주최한 행사는 한복을 차려 입은 4명의 여성 사회자가 진행했고, MBC 〈궁〉, 〈파스타〉와 KBS 〈풀하우스〉, 〈꽃보다 남자〉 등이 화면을 장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도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도 국빈환영 행사를 통해 '동방의 등불 코리아'가 서구 문화 수도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 특별시사회에서는 K팝·K드라마·K시네마 등 한류 주력 콘텐츠, 즉 K컬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벨기에로 이어진 방문에서도 마침 유럽 미래 명운이 걸려 있는 EU 2020전략과 한국 창조경제, 문화융성 전략을 협업하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과학·연구·혁신 분야 창조경제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동 협력이 눈길을 끈다. 이런 협업은 하기에 따라서 한국이 키를 쥐고 리드할 수 있는 문화마케팅 영역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문화 아웃사이더였던 기업들을 위한 들러리로서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그러한 2류, 3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문화콘텐츠 자체만으로 창조산업을 옹골차게 키워놓았다.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주력 시장에 자체 콘텐츠를 심고 대통령 환영 팬클럽 파티까지 열리게 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문화수출국이 되었다. 문화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 과학, 순수예술, 교육과 융합하고 협업해 더 많은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매개체라는 점을 여러 유럽인들도 재확인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중심적 접근 초월해서 문화마케팅 격을 높여야

이제 문화마케팅 활동의 격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과거 고속열차, TV, 심지어는 군수물자를 팔기 위해 문화마케팅을 곁들였던 실리·실무·실용 위주의 경제중심적 접근을 초월해야 한다. 소피 마르소가 눈부시고 신기해 구매 결정을 하는 낮은 차원의 세일즈 중심 문화마케팅이나 문화외교는 더 이상 통하기도 어렵다. 바로 지금 한국이 말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정직하게 풀어나가면 된다.

녹슬어가는 거대 경제를 문화가 재생시키고 새로운 파이를 키워나가게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자고 독려하는 문화세일즈 외교라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깊은 관계가 되도록 교류하고 교역하는 품격 높은 문화마케팅을 한국이 먼저 해 보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많은 산업과 비즈니스를 북돋우고 꽃피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아야 한다.

이번 유럽 순방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범지구적으로 추구하는 계기가 되는 창조적인 문화세일즈 외교 성공사례로 남길 바란다. G

글 · 심상민(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준비 끝"… 국민 참여만 남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도로명주소 써야 법적 효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 표기를 할 때 도로명주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신청을 비롯해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도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권고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 현재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중 어느 쪽을 기록해도 문제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기록해야만 처리가 가능해진다.

올해 말까지는 일반 국민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이를 접수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처리한다. 물론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어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지번주소를 적어 넣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전입신고, 부동산 임대차·매매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실거래가 신고 등 계약서에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작성·제출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명주소는 이래서 도입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번주소는 순차적·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찾아가기 쉽고 알려주기 쉬워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소방·구조 등 긴급출동 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주소체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만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일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한 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오랫동안 사용해 온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 주소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해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로명판 35만개, 건물번호판 590만개 설치를 마침으로써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대비해 왔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등은 물론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뒷면의 '알림 스티커',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사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1,095종 가운데 1,093종의 주소 전환을 마쳤다. 11월까지 법인·부동산등기부의 주소도 전환을 마치게 된다. 각종 민원서류, 지방세 고지서, 내외부 업무 시에도 이미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홈쇼핑, 통신회사 등 기업이 도로명주소법의 요건에 맞게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3항)에도 적법하다. 따라서 고객 개개인에게 고지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민법(제2조 신의성실)에 따라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은 해야 한다. G

글·박경아 기자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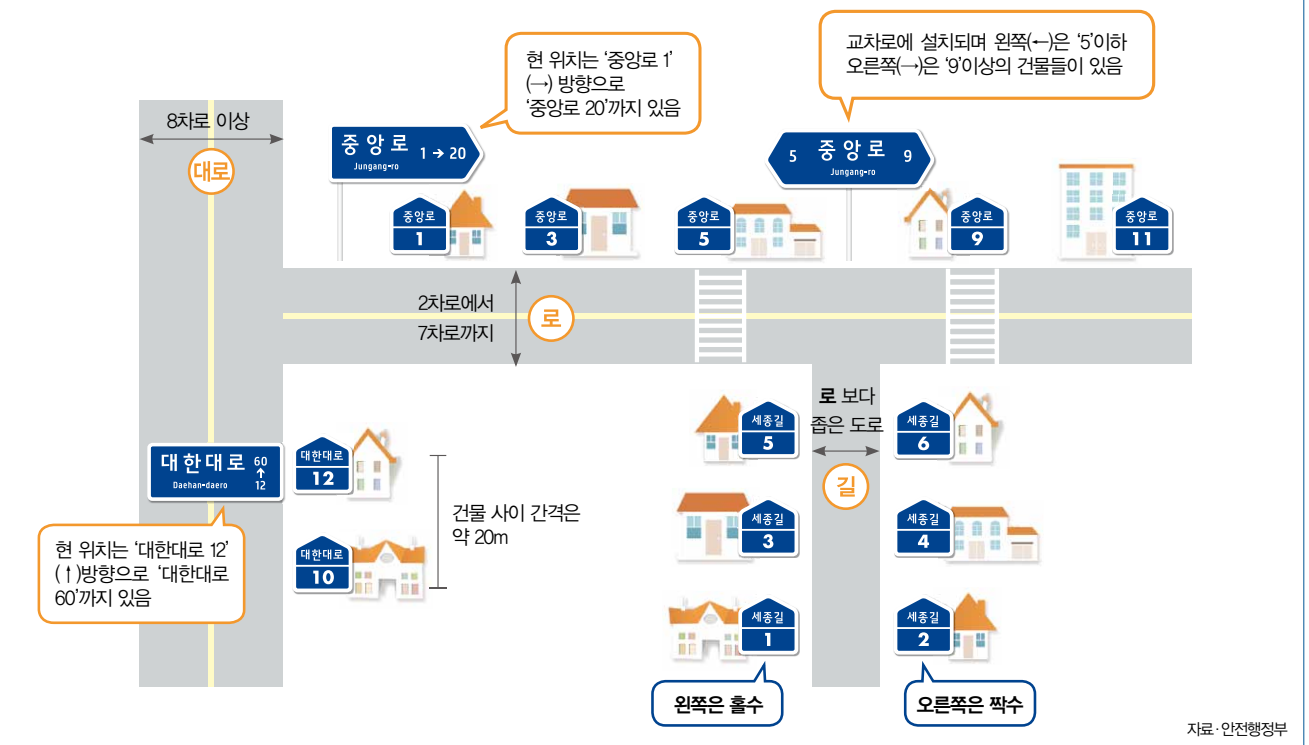
도로명 부여 기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12~40m,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건물번호 부여기준 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종점 방향(서→동, 남→북)으로 20m 간격이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예)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34-2 ⇒ 서울시 종로구 종로 9길 23(공평동)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서초동)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 (서초동, ○○아파트)

※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 항목(괄호)으로 기재.

자료: 안전행정부

2011년부터 교육…“이젠 99퍼센트 숙달”

전국 3,500개 각급 우체국서 도로명주소 적응훈련… “국민들 적극 호응만 남았습니다”

서울 광화문우체국 집배실의 우편물 구분대에는 칸칸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적힌 형광색 메모지가 붙어 있다.

서울 광화문사거리 동아일보 사옥 뒤편. 우정사업본부라는 간판 옆에 ‘서린동’이라는 옛주소 대신 ‘종로6’이라는 새주소가 달렸다. 같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광화문우체국 집배실은 이른 아침부터 우편물을 분류하는 집배원들로 붐볐다.

종로구 전체 우편물을 담당하는 이곳 광화문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은 80여 명. 아직 연말 우편물이 쏟아지는 시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집배원들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보다 20~30분씩 일찍 도착해 전날 도착한 일반 우편물을 확인하고 당일 도착하는 등기·택배 우편물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 100퍼센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한 준비가 99퍼센트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17년차 베테랑 집배원 곽규진(42) 씨가 전날 오후 늦게 도착한 우편물을 자신의 오토바이 뒤칸에 옮겨 담으며 말했다. 곽 씨 담당구역은 종로구 창신동 일대. 동료 집배원 7명과 함께 구역을 나눠 책임지고 있다. 경조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비해 평소 다른 사람의 담당구역을 2~3곳 정도 더 익혀둔다고 한다.

집배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던 우편물 구분대에는 칸칸마다 형광색 메모지가 붙어 눈길을 끌었다. 메모지에는 ‘창신동 293-2’, ‘종로 337’ 같은 글씨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적은 구분표예요. 둘 다 외워놔야 하죠. 처음에는 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교육도 여러 번 받았어요. 이제는 거의 숙달됐죠. 그래도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나 제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신해 줄 동료를 위해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1년 초부터 전국의 3,500여 개 각급 우체국에서 도로명주소 적응훈련을 해 왔다. 분기별로 암기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을 업무평가와 연계해 진행하고, 안전행정부와 관할 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 담당자를 초빙해 연 1회 이상 교육도 받았다. 집배원 스스로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우편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분대마다 붙여놓은 구분표도 그런 노력의 하나다. 집배실 한 쪽 벽에는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대형 지도를 걸어 드나들 때마다 수시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서울 광화문우체국 집배원 곽규진 씨가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도로명주소가 부착된 단독주택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

“새 주소체계 숙달에 6개월~1년 걸렸네요”

광화문우체국 우편물류과 이귀영(47) 집배실장은 “새 주소체계에 숙달되는 데 빨라도 6개월, 보통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만 놓고 보면 적응하기 쉽지요. 1호 맞은편은 2호, 그 옆은 3호, 이런 식으로 주소와 위치가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새 도로명주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준비에 또 준비를 해 오고 있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아직 높지 않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지난달 처리한 우편물을 보면, 한 해 처리하는 46억건의 우편물 중 38억건을 지번주소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팀 주동율 팀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수록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변경된 우편물 배달체계가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국민들께서 불가피하게 지번주소를 사용하시더라도 우편물을 정상 배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우편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물량은 약 5억건. 이중 개인 간 택배 물량은 6천만건에 이른다. 도로명주소 정착에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절실한 이유 중 하나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다. 기존의 구·읍·면·동·리와 지번을 입력하거나 건물명·도로명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이트에도 링크.

내 손안의 도로명주소 안내–앱 ‘주소찾아’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약속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리와주소’, 도로를 기준으로 주변 관공서·음식점·상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길따라주소’, 도로명시설물 훼손을 신고할 수 있는 ‘고쳐주소’ 등의 메뉴로 구성.

이제 도로명+건물번호로 주소가 바뀐다. 지금까지 사용한 지번주소와는 찾는 과정이 어떻게 다를까? 두 명의 실험맨과 현장실험을 해 봤다.

지번주소 VS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찾기 실험조건

김고생(가명) 씨는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친구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고, 그가 받은 주소는 마포구 신수동 93-XXX이라고 적힌 지번주소다. 친구는 "신촌을 지나 서강대 정문 근처 신수동"이라고 설명해 둔 상태다.

도로명주소 찾기 실험조건

나편해(가명) 씨 역시 같은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휴대폰은 없다. 그가 받은 주소는 마포구 신수로 9길 XX. 도로명이 적힌 새 주소다. 친구는 나 씨에게 '신촌로–백범로–서강로 16길–신수로'라는 길 이름 순서만 알려주었다.

지번주소로 친구집 찾기

큰 건물 찾은 뒤 골목길 접어들자 헤매기 시작

1. 이화여대 정문 출발 – 첫번째 부동산중개업소 방문

오후 2시. 김고생 씨는 출발하자마자 이화여대 앞 부동산중개업소로 들어갔다. 서강대가 어느 방향인지부터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중개업소 벽에 붙어 있는 커다란 지도에서 신수동의 소재부터 파악했다. "서강대 정문 근처네요." 부동산 아저씨는 예상대로 주변의 랜드마크를 일러주었다. "서강대로 간 다음 그곳 주민한테 한번 더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신수동'을 알 수 있는 표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2. 서강대로 가는 길 뒷골목 – 두번째 부동산중개업소 방문

김 씨는 '서강대'라는 건물명만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여러 갈래로 뻗은 골목에서 헤매기 시작했다.

주택가로 보이는 길에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서강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오늘 안에 찾을 수 있겠죠?" 그는 한숨을 쉬며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두번째로 눈에 띈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렀다. 중개업소 직원은 벽에 있는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주소지가 적힌 종이와 지도를 번갈아 보기를 몇 번 하고 나서 "서강대 정문 앞에서 건너 삼익아파트 뒤"라고 설명해 주었다. 역시 건물 이름을 중심으로 알려줬다.

3. 서강대 정문 – 목적지 도착

서강대 정문에서가 고비였다.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 설명한 대로 서강대 정문에서 건너 삼익아파트 건물을 찾았다. 김 씨는 소리를 질렀다. "저 뒤다!"

하지만 아파트 뒤 골목으로 들어서자 여러 방향으로 또 다른 골목길이 나타났다. 어느 길목으로 들어가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던 김 씨는 "에잇, 복불복이지 뭐!" 하면서 첫번째 골목부터 뒤졌다. 건물마다 희미하게 지번주소 번지가 적혀 있었다. 집집마다 대문 앞에 코를 박다시피해 흐릿하게 적힌 번지를 확인하던 김 씨는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선 그는 아파트 뒤편 골목을 지그재그로 9번 방향을 튼 뒤에야 마지막 골목에 위치한 목적지(친구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34분.

그나마 운이 좋았다. 김 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말해 준 '아파트 뒤편'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첫번째 골목에서 헤맸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었다. 김고생 씨는 "지도는 정말 인류의 혁명이었네요"라며 혀를 내둘렀다.

도로명주소로 친구집 찾기

대로·로·길과 홀·짝수 규칙 알자 너무나 쉬워

1. 첫 길 신촌로 발견

도로명주소 찾기 실험자 나편해 씨는 주변에 길을 묻지 않고 찾아갔다. 첫번째 도로 '신촌로' 이정표부터 쉽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 씨는 길을 찾는 내내 "엄청 쉽네~!"라며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당시 그는 주소가 적힌 종이와 '신촌로–백범로–서강로 16길–신수로'라는 길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 외 주변 건물명이나 랜드마크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와 '로' 그리고 '길'로 구분된다. '대로'는 폭이 40미터이거나 8차로 이상의 큰길을 말한다. '로'는 12~40미터이거나 2~7차선을 말한다. '길'은 기타 작은 골목길을 뜻한다. 신촌 로터리에 이어진 모든 도로는 8차선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신촌로'를 지나 두번째 길인 '백범로'를 향해 내려갔다.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 신촌 로터리로 불리는 신촌역 사거리가 나왔다. 파란색의 표지판들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정표를 응시하며 두리번대던 나 씨는 "아하!" 하면서 손가락을 튕겼다.

2. 백범로–서강로 발견

"왼쪽 길은 홀수 번호, 오른쪽 길은 짝수 번호네요!" 나 씨는 뻗어 있는 길들 중 몇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도로명주소의 규칙을 빨리 이해했던 것이다. 신촌 로터리에서 왼쪽으로 향한 화살표시 표지판에는 '백범로'라고 적혀 있었다. 백범로에 들어서자 그는 손가락으로 오른쪽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른쪽이 짝수니까 서강로 16길은 이쪽에 있겠네요." 서강대로 향하는 오르막길에서도 골목 정문에 이르러 나 씨는 세번째 길인 '서강로 16길'을 발견했다.

3. 신수로–목적지 도착

목적지인 '신수로'는 쉽게 눈에 띄었다. 신수로에 들어서자 오른쪽에 순서대로 13길–11길–9길 표지판이 이어졌다. 나 씨는 '신수로 9길'을 찾아 들어갔다. 집마다 건물 번호가 붙어 있었다. 건물 번호 역시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였다. 나편해 씨는 책 속의 색인을 발견한 듯 입으로 숫자를 세며 한결 느긋한 발걸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와, 도로명주소로 왜 이제야 바뀌었나 모르겠어요"라며 "1·2·3 숫자와 왼쪽 오른쪽 구분만 하면 이제 누구나 찾을 수 있겠네요~"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실험 결과는? 바로 뒷장에! G 글·박지현 기자

옛 지번주소·새 도로명주소로 각각 낯선 곳 찾아보니

"도로명주소가 9분 빨랐다"

지번주소 실험맨의 궤적

도로명주소 실험맨의 궤적

실험 결과는 가설대로 도로명주소 찾기의 '승'이었다. 지번주소 찾기로는 33분 45초, 도로명주소 찾기로는 24분 4초가 걸렸다. 도로명주소 찾기가 9분 정도 빨라 약 30퍼센트의 시간을 절약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주변에 일일이 물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었다.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데 소요된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가 규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번주소 찾기 실험맨 '김고생' 역할을 맡아준 김종윤(30) 씨는 땀을 닦으며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니었으면 찾아가지도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이 "길을 잘 찾는 편"이라며 자신했다. 하지만 그에게 지번주소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였던 모양이다. 실제로 신촌 근처에 잘 오지 않았던 김 씨는 스마트폰이 없어 길을 헤맬 때 정말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여러 골목을 헤맬 때마다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더라고요."

김 씨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지번주소의 경우 주요 건물이나 지명을 말해 주면서 길을 알려주니까 근처 지리를 잘 알지 못하면 더 헤맬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방문한 두 곳의 부동산중개업소 모두 '신촌로터리', '서강대', 그리고 '삼익아파트'와 같은 유명한 지명이나 건물을 알려줬다. 전통적인 길찾기로 아직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다.

김 씨는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들이었다면 종이 지도를 가졌더라도 이런 골목에서 집을 찾기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며 "길을 물어서 간다고 해도 '어디 옆, 무슨 건물 뒤'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 실제로 그 건물을 찾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길찾기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도로명주소 찾기 실험맨 '나편해' 역할을 맡았던 이윤식(26) 씨는 "마치 사전의 색인 찾기를 하는 것처럼 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처음에 길 이름을 들었을 때는 도로 명칭 자체가 낯설어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길을 나선 뒤에는 금세 익숙해졌다. "골목마다 길 이름과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길을 놓쳤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 뒤돌아본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한편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대로와 도로 이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됐다. 이 씨는 "실험 조건에서 길 이름을 차례로 명시해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지현 기자

토지의 위치 표시는 계속 지번 사용

'나들길 100-1'은 '나들길 백의 일번'으로 읽어야

Q 건축물대장에서 세대 분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가구별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달리하나요?

A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건물, 다중주택,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관리하게 됩니다. 소유주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명 담당부서에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부 등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Q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거래 시 기존의 지번과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위치 표시는 지금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표시합니다. 사람의 거주와 관련이 있는 주소만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부동산인 토지의 위치 표시는 지번을 사용합니다.

Q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이 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건물을 신축 혹은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해당 지자체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고 건물 출입구 우측 상단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해야 합니다.

Q 도로명주소에는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지 않나요?

A 새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복잡하고 긴 아파트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존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000번지 000아파트 00동 000호'로 표기되던 아파트의 새 주소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 0길 000(건물번호), 00동 000호'로 간략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동·층·호)를 추가 표기하되, 법정동과 공동주택의 이름은 참고 항목으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해외 바이어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주소 표기가 달라진 경우는….

A 도로명주소 영문명칭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소 동일성 증명'이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juso.go.kr)을 통해 하루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개인·법인)와 등록된 증명서 수령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공공 i-PIN) 절차가 필요합니다. G

글·박경아 기자

도로명판 보는 법

도로명주소, 국민생활에 스며든다

통신·은행·보험사들, 고지서·안내서에 도로명주소 함께 적어 배달

"도로명주소요? 심지어 제가 사는 곳의 도로명주소가 뭔지도 전혀 몰랐죠. 앞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주부 최도로(가명) 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도로명주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도로명주소를 잘 몰라도 일상에 불편함이 없고 오래 사용하던 지번주소가 아니라 낯설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된다는 이야기에도 '그때 가서 외우지 뭐' 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최 씨는 얼마 전 날아온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보고 처음 자신의 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게 됐다. 고지서에는 지번주소 대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11'이라는 도로명주소가 적혀 있었다. 최 씨는 "휴대폰 요금고지서뿐 아니라 몇몇 다른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가 쓰여 있었다"며 "도로명주소를 찾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체계. 사진은 서울 종로의 도로명 표지판.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고지서, 은행예금 안내서, 보험 안내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등을 도로명주소로 배달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고지서·안내서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레 도로명주소를 익히게 돼 생활주소로 안착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행 취지다.

우편물 발송량 많은 KT·SKT 참여 큰 도움

특히 우편물 발송량 순위가 각각 1위와 3위인 KT와 SKT가 참여해 도로명주소를 알리고 있다. KT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SKT는 올해 8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고 있다.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24개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권도 동참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예금안내서와 KB생명보험, 그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의 보험 안내서가 도로명주소로 발송되고 있다.

보험사와 카드사 대부분은 올해 말까지 고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롯데닷컴, 신세계몰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도로명주소의 시범 적용 등을 거쳐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30여 일 앞두고 전국 일제 행사가 실시된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준비상황을 자체 점검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페이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요 거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자기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경기도는 '새주소 체험관'을 운영한다.

글·남형도 기자

예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번에 바꾸세요~

11월말까지 간편한 바꾸기 캠페인… 경품도 푸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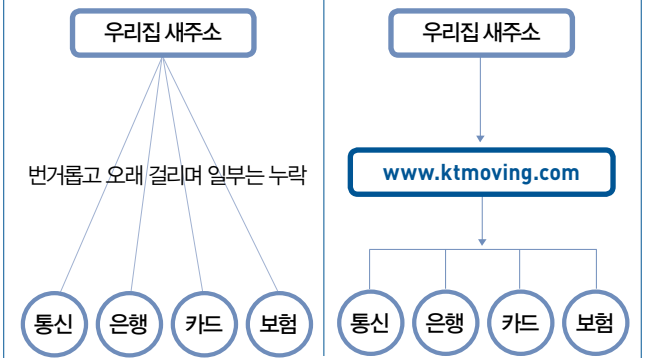
www.ktmoving.com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앞두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새주소 한 번에 바꾸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여러 사이트에 등록된 자신의 예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 새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인 주소변경 원 클릭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주소변경 원 클릭 서비스에 접속하면 상단 탭에서 집이나 회사 중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후 우편번호 검색을 누르면 자신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찾아준다. 입력된 기본주소 이외에 동, 호동 등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주소 입력이 끝난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변경신청' 버튼을 누르면 주소변경이 간단하게 완료된다.

주소변경 신청한 결과는 2~3일 후 메일로 통보된다. 원 클릭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면에서 신뢰도가 높고, 우편물 반송, 오발송, 분실 등 기업과 개인간의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텔레비전·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경품 이벤트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응모된다.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116개 기업이 함께 마련한 행사다.

원 클릭 서비스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2단계 6개 중앙부처 12월 이전
세종의 두 마리 용 '기지개'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특별자치시 한복판에 미완의 정부세종청사가 두 마리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옛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편입하여 우리나라의 17번째 자치시로 출범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시설을 갖춘 최첨단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에 12월 13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이전이 시작된다. 2014년 말 미완의 용이 완공되면 9부2처2청 이전이 완료되고, 세종시는 1만5천명이 근무하는 행정복합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세종시 대표블로그 가온누리아띠 sejongstory.kr

1 세종시청이 최근 촬영한 무인항공 사진 속 정부세종청사의 모습이다. 사진 왼쪽 건물에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단계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오른쪽이 2단계 입주 기관들이 들어올 청사 건물이다. 청사가 완공되면 3.6킬로미터에 이르는 하늘정원이 하나로 이어진다.
2 국립세종도서관의 야경.
3 금강 남쪽 상공에서 바라본 세종시의 모습. 금강 건너로 호수공원과 정부세종청사가 보인다.

공정률 95퍼센트… 입주 준비 "이상 무"

5,600여 명 새 보금자리… 편의시설 크게 늘어 기존 공무원들도 기대감 높아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를 앞두고 국립세종도서관(왼쪽), 세종호수공원 무대섬(오른쪽)에 불빛이 환하게 들어와 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는 산책길이 조성됐다.

'쿵, 쾅, 뚝, 딱.'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를 앞두고 분주하다. 11월 12일 오후 찾은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구역은 각종 중장비와 인부들의 몸놀림으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유독 차가워진 초겨울 공기와 쌀쌀한 바람을 무색케 하는 열기였다. 건물들의 윤곽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조경과 외관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서자 입주 절차만 남겨둔 듯 완성된 모습을 과시하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2단계 입주는 12월 중으로 완료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12월 13일부터 이전할 계획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이 같은 기간 이사한다. 5,600여 명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하게 됐다.

행복도시건설청 대변인실 박춘수 사무관은 "2단계 입주를 앞둔 가운데 청사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입주해 있던 공무원들의 기대감도 크다. 우선 편의시설이 1단계 입주 때보다 대폭 늘게 된다. 식당 4곳이 추가되면서 한번에 1,600여 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규모 면에서도 커진다. 또 660평방미터 규모의 종합 쇼핑몰이 추가돼 충분하지 못했던 주변 상권을 보완할 전망이다. 어린 자녀를 둔 근무자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3곳 600명 정원으로 확충된다. 이밖에 커피숍 6곳, 체력단련실 3곳, 은행 4곳이 새로 생긴다.

해가 져서 거뭇거뭇한 밤에 본 2단계 입주 준비현장과 주변의 모습은 한층 매력적이다. 이곳의 스카이라인은 1년 전만 해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청사와 인근 아파트 공사로 건물이 올라가면서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허허벌판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도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상쾌한 밤공기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현장 곳곳의 밝은 불빛들이 곧 환하게 켜질 세종시의 두번째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다. G

글·이창균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주거·교육환경 쾌적해 만족합니다"

박유준 국토교통부 주무관 "2단계 입주 뒤 의료·상권 보완 기대"

"세종시 주변에는 아이와 가볼 곳이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특히 축제가 많은데 축제에 갈 때는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갑니다.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돼 이동하기 편하고, 둘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직장에서 가까운 게 좋습니다."

지재만 기자

박유준 주무관은 세종시가 많은 행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다들 '정말 세종시로 내려갈까?' 하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죠. 선뜻 이른 이사를 결정한 걸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을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다소 쌀쌀해진 11월 12일 저녁. 세종시에서 만난 박유준(38) 주무관(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가족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쾌활한 성품의 박 주무관은 부인 배경서(38) 씨와 아들 진영(11) 군을 둔 가장이다.

"저희가 언제 내려왔는지 말씀드리면 살짝 놀라실 거예요. 정부세종청사는 1단계로 지난해 12월 말에 경기 과천시에서 세종시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그보다 1년 앞선 2011년 12월 17일 이곳 세종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놓던 때였다. 남들이 하는 말에 불안감을 가졌던 지인들이 박 주무관을 만류했다. 박 주무관은 그때를 회상하며 "인생에서 삼박자가 맞았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가족이 이사를 빠르게 결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거주하던 전세 아파트 계약기간이 마침 끝나갔다. 다음으로 자녀 교육 문제였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의 전학이 더 늦어지면 나중에 친구들을 사귀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마음을 굳히던 차에 첫마을 1단계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삼박자 맞아 빨리 이사했죠"

결혼 전 박 주무관의 부인은 지방 민영방송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다. 결혼 후 아내와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퇴사했다가 최근 세종시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참 대단한 아내죠. 그냥 '쫌' 예쁜 아줌마려니 생각했던 아내가 글쎄 40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중견 건축사무소에 합격하더군요. 능력을 인정받고 다니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하하!"

세종시가 맞벌이를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여건이라는 배 씨는 무엇보다 운전하기 좋은 인프라를 장점으로 들었다. "남편 직장과는 좀 떨어져 있어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곳 세종시 트럭들은 실명제 스티커를 차창 앞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인지 난폭 운전을 하는 대형 트럭들이 별로 없어요. 신도시라 공사 차량이 많다 보니 대형 트럭 같은 큰 차들이 신경 쓰였는데 고민이 말끔히 해소됐어요."

가족의 세종시 생활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어떨까? 인기 아이돌그룹의 유행가 제목처럼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세차를 몇 달 동안 안 했는데도 매연에 의한 오염이 거의 없어 자동차가 깨끗하다. 밤만 되면 수도권 밤하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자리들도 만난다.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국토 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말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든 부담 없이 다니기 좋다. 최근 가족은 전남 영암에서 열린 F1그랑프리 경주대회를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서울에 있었다면 큰 시간적 부담을 감수했을 일이다.

고속버스가 서울까지 하루 19회 왕복하고 대전과 오송역까지는 10~20분 간격으로 BRT(Bus Rapid Transit)라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버스가 오간다. 가끔 멀리 외출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아들 진영 군의 꿈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단다. 하나뿐인 아들의 교육 문제를 염려하는 평범한 아빠에게도 세종시는 만족스러운 곳이다.

"세종시 주변에는 아이와 가볼 곳이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특히 축제도 많은데 축제에 갈 때는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갑니다.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돼 이동하기 편하고, 둘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직장에서 가까운 게 좋습니다. 며칠 전 학부모 참여 공개수업이 있었는데 점심시간 중에 다녀올 수도 있었거든요. 아이의 발표 모습을 직접 보고 영상으로 담으면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편의시설 많아질 2단계 입주 기대감 커요"

박 주무관은 연말에 있을 중앙부처 2단계 입주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인 회사에서 설계를 맡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내후년께 들어설 예정이라 주거 환경은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극장이 들어서면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닐 생각에 들뜬다.

박 주무관은 "주민들이 대체로 세종시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큰 병원과 대형 복합쇼핑몰이 없다는 건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2단계 입주 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4인승 민간 소형항공기 '나라온'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세종시로 오면서 주거환경뿐 아니라 업무환경도 좋아졌다. 청사가 과천에 있었을 때는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오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수월해졌다. 박 주무관도 예전보다 출장이 줄어든 대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늘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영상회의, 그리고 거주지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 이용이 활성화된 덕분인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G

글·이창균 기자

중앙포토

스마트스쿨을 운영하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5학년 음악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최첨단 전자칠판과 스마트패드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원스톱 서비스'

첫마을 학교시설 부족은 일시적… 유·초·중 1개교씩 내년 신설되면 완화

"세종시로 이사 가게 됐는데 교육 여건이 어떤지 잘 몰라서 고민이에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세종(41·가명) 씨 부부는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다. 전직을 하면서 내년에 세종시로 이사 가게 되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교육이 걱정이다. 이 씨는 "아이가 내성적이라 친구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전학 갈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교육 환경은 어떤지 궁금하다"며 "세종시 부모들의 고민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세종맘'(세종시 엄마들) 카페에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와 질문들이 쏟아진다. 그만큼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세종맘들의 고민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해결 방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세종시 내 학교가 부족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는 세종시로 입주하는 이전기관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하여 첫마을에 6개 학교(유치원 2,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학부모들의 열의와 기대로 당초 분양계약자보다 많은 젊은층 학부모가 대거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솔초와 한솔중의 정원이 초과돼 학교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특별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임시 학급을 증설했습니다. 참샘초와의 공동학구제 운영과 인근 학교(한솔고, 종촌중)를 활용해 학생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 1개교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설립 확정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학교 신설 예산(부지비·시설비)을 지원받아 내년 3월에 (가칭)미르유치원과 미르초등학교, 새롬중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Q 학교폭력 문제는 모든 부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A 교육청은 지난 3월 인성교육과를 신설해 학교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는 학교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기능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총괄 전담 부서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아람센터'를 열었습니다. 세종아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일반적인 치유센터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정신건강 치료지원 및 복지지원 대상자 돌봄지원, 학습클리닉과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추진합니다. '진단–상담–치유–회복'의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아람센터에는 놀이치료실, 심리치료실, 개인 및 집단상담실, 쉼터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사, 학습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심리 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성장프로그램 등을 위주로 상담 치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Q 세종시교육청 대표 브랜드가 '스마트교육'입니다. 새로운 교육 방식에 우려는 없나요?

A 세종시교육청 출범 초기 스마트교육에 대한 우려와 오해도 많았지만, 지금의 세종시 스마트교육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양한 교원역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스마트교육 시스템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교과별로 더욱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고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공유하고, 인식을 함께할 때 스마트교육 효과는 더욱 배가되리라 생각합니다.

Q 세종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학교 현장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교육청은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학교 특성화 등 세 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속학교와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은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인근의 학부모들도 찾아가는 선택형 특성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를 통해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학교 특성화 사업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브랜드화 해 교육 수요자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초 9개교, 중 2개교, 고 3개교 등 모두 14개 학교를 선정해 총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글·남형도 기자

세종시 교육 소식, 한눈에 보려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매월 〈행복세종교육소식지〉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교육청 공보실로 전화해 구독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받아볼 수 있다. 매주의 이슈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을 수도 있다. 뉴스레터는 신청 다음 날부터 받아볼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보실 ☎ 044-320-1137 news.sje.go.kr

SNS 서비스를 통해 교육 정보와 현장 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트위터 twitter.com/sejong_edu
페이스북 facebook.com/sejongedu
유튜브 youtube.com/sejongedu

"새 출발 기대감은 큽니다"… "서울~세종 통근 불가피 합니다"

세종시 2단계 이전 앞둔 6개 부처 공무원들의 '4인4색' 이주 전략

자료 · 안전행정부

분양아파트 입주

산업통상자원부 서승희 주무관

"아이들이 더 신나 이사 날짜 손꼽아 기다려요"

서승희(40) 주무관은 '새집 장만'이 기쁘다.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2년 전 분양받은 어진동 1-5구역에 위치한 포스코아파트에 오는 12월 27일 입주한다. 크리스마스 이틀 뒤다. 서 주무관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한다. 남편은 본가인 서울 성북구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다. "아이들 아빠가 주말에 세종시로 내려와야 하는 '거꾸로' 주말부부가 된 셈이죠."

서 주무관은 현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세종시의 새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지만 '훨씬 더' 낡은 아파트"라며 "109평방미터(33평형)의 새 아파트는 전세는커녕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흔치 않은데 입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건 6세, 4세 남매다. 아이들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흥얼거리면서 매일같이 손꼽아 이삿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청사 내 어린이집 친구들이 지난해부터 하나둘씩 세종시로 가니까 '엄마, 우리는 언제 세종시로 가?'라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서 주무관은 입주와 더불어 '세종맘'이 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 교육문제를 가장 걱정했다.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적어 주말에 어디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지 고민이 좀 돼요." 그는 틈틈이 세종맘들을 위한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으며 꾸준히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큼 손꼽아 기다리는 이삿날이니까 그만큼 잘 지낼 것 같아요."

대전에 거처 마련

국무조정실 유훈 사무관

"서울선 멀던 영호남 명소들 자주 가게 되네요"

유훈(35) 사무관은 현재 '낯선' 지방생활 1년차 주민이다. '서울 토박이'인 그는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지난해 9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세종정부청사까지는 통근버스로 40~50분 정도 걸린다. "예전부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서울에서는 엄두도 못냈지만요."

그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풍부한 녹지환경을 최우선 장점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경치 좋은 공원과 운치 있는 식당 등이 정말 많다"며 "도심도 정말 깨끗해서 사는 데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현재 52퍼센트가 녹지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생태문화 라인이 형성돼 있다.

유 사무관은 특히 서울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지역 명소들이 한결 가까워져 좋다고 말했다. "가끔 전라도나 경상도로 놀러갑니다. 세종시로 오고 나서는 이동 시간이 적게 드니까 더 자주 다른 지역으로 나가보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 걸 알게 돼 애국심도 커졌습니다. 하하!(웃음)"

서울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편의시설이 부족한 세종시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는 "주말에 늘 서울에 가니까 주중과 주말을 각각 다른 환경에서 번갈아가며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 전셋값이면 직장 근처에 있는 주택도 살 수 있고, 주변에 공원과 녹지도 많아서 '힐링'의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죠."

임대아파트 방 한 칸 생활

교육부 노연규 사무관

"매일 반복되던 '지옥철'서 해방되니 일단 기뻐"

노연규(44) 사무관은 요즘 기대에 부풀어 있다. 내년 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이사를 가기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랄까요."

노 사무관은 세종시의 방 한 칸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지낼 계획이다. 근무지와 거주지가 가까워지는 것이 큰 장점이다. 원래 경기 부천시 주민이었던 그는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을 환승하며 서울로 출퇴근해 왔다. 매일 한 시간이 넘도록 '지옥철'을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걸어서도 사무실까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집 앞 정류장에서 노선버스(설치 예정)를 탈 경우 10분 내외다.

그가 살 곳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682세대 한신공영 임대아파트다.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구역에 위치해 있다. 이 블록은 교육부 청사에서는 조치원 방향으로 3~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노 사무관은 아파트의 방 세 칸 중 '한 칸'을 임대하게 된다. "혼자 살 거니까 여러 개 방이나 큰 방은 필요 없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주거비용 절감이다. 보증금 615만원에 월 12만3천원을 낸다. 관리비는 별도라지만 서울 일반 월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한편 걱정도 된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두 집 살림을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 "그래도 떨어져 지내봐야 애틋함도 생기니, 나중에는 더 좋아질지도 모르죠!(웃음)"

서울서 출퇴근

보건복지부 이완기 사무관

"연로한 부모님 모셔야 하고 기러기 아빠가 싫네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세종청사 도착까지 총 130.20킬로미터. 고속버스로 약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다. 집에서부터는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이완기(35) 사무관의 통근 예정 거리와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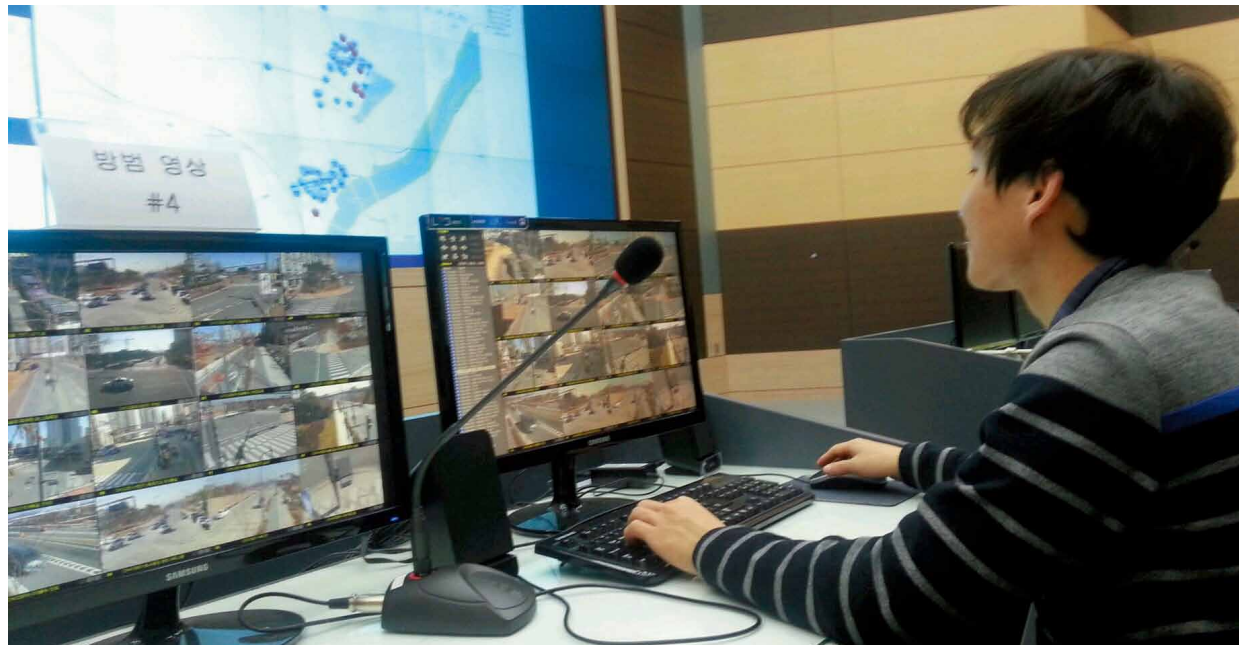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는 그는 세종시 부처 이전 후에도 당분간 서울~세종시로 통근할 계획이다. 지금은 안국역 근처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빌딩까지 3호선을 이용해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세 배 가까운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편도 8,100원, 왕복 1만6,200원으로 한 달로 치면 32만4천원이 든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20만원을 제외해도 12만원 넘게 교통비로 쓰게 된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 떨어진 신사역에 공무원 통근버스가 있긴 하다.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방법 역시 고민 중이다. 이 사무관은 가족을 이유로 꼽았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곁에서 돌봐드려야 하거든요. 아이가 네 살이라 아프면 신속하게 병원에 갈 수도 있어야 하고요. 아내도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가족 전체가 세종시로 이주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내려가서 사는 방안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기러기 아빠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아직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으니 당분간만이라도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해야죠." G

글 · 박지현 기자

"손금 보듯 보고 있다, 범죄 꼼짝마!"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서 밀착 감시

도시통합정보센터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와 정부청사 사이 별도 건물에 자리를 마련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방범CCTV를 시범 모니터링 하고 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오는 12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에 사는 주부 최은아(29) 씨는 세종시 첫 입주민이다.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2011년 12월 첫 세대로 입주해 올해로 세종시 생활 2년째를 맞고 있다.

네 살, 세 살짜리와 태어난 지 6개월 된 막내까지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 씨에게 가장 큰 바람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주는 것이다.

최 씨는 "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파트만 달랑 있고 주변이 거의 공사판이라 삭막하고 썰렁했는데, 지금은 주변 편의시설 등 많은 것이 갖춰지게 돼 다행"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최 씨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 이후엔 인적이 끊겨 주민들이 밤에 산책이나 운동을 나가고 싶어도 꺼려지는 동네였다. 세종시에 문을 연 식당들은 주로 입주 공무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문을 닫아 늦은 밤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덜어주고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7월 초 부임한 세종경찰서 박종민 서장은 오자마자 직접 주거 현장을 돌며 취약 지구를 조사하고, 가로등 보강과 자율 방범순찰을 지시하는 등 '안전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 내에 주둔하고 있는 충남지방청 경비계 소속 505부대는 집회 시위가 없는 날엔 세종시 방범활동에 주력한다. 총 50여 명의 부대원들이 세종시의 주·야간 방범활동에 분산돼 나가고 있다.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신재윤 경장에 따르면 "505부대 외에도 한솔파출소에는 총 23명의 인력이 있어 야간 근무자들이 공사 현장이나 주택가를 순찰하며 세종시 입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 등 배치 때 가시권 최대화시켜 사각지역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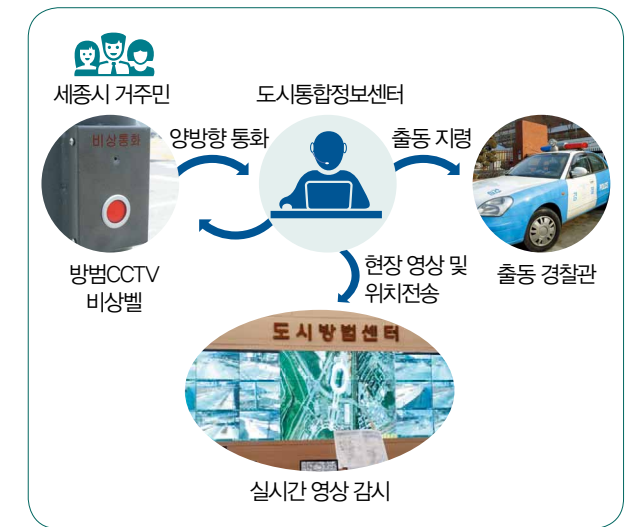
일선 경찰들의 노력에 앞서 세종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설계 기법'을 도입해 사각지역을 최소화하도록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범죄 발생을 관찰할 수 있는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해 범죄활동의 확률을 낮췄고, 야간 가시권을 높이기 위해 도로·문·창문 등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했다.

또한 행복청은 지난 10월 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5개 생활권에 방범CCTV 162대의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방범CCTV는 학교, 상가, 청사 인근 등 주요 지점에 집중적으로 구축해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된 각각의 방범CCTV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 누구든지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자동 위치 표시 및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상황 시 인근 CCTV들이 사고 지점을 지향해 촬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범죄 예방 및 용의자 검거에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첫마을아파트와 정부청사 사이 별도 건물에 위치해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오는 12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약 2개월간의 시범 테스트를 거쳐 세종시의 주도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안전 서비스 시스템

세종시청 정보화담당관실 김혜진 주무관은 "도시통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는 내년에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조치원이나 읍·면 단위로까지 감시 기능이 확장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가로등 설계도 차량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계획하고 충분한 밝기를 유지했다. 보행로를 설계하는 경우 차로와 인접하게 하거나 평행하게 배치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 전기·가스·통신·용수 등의 주요 기반시설 복구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도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호 계획'도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박미숙 기자

김상태 객원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듣고 있는 이진자(왼쪽) 씨와 한영미(오른쪽) 씨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를 들고 있다.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수강 중인 30여 명의 회원들은 이곳에서 기른 배추 200포기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텃밭에 각종 채소… "농사꾼 다 됐어요"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 기부도… 농사 배우며 이웃 농업인들 이해

세종시에 사는 한영미(57) 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농사꾼'으로 통한다. 웬만한 야채는 직접 재배해 먹고, 화분의 분갈이도 척척 해내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씨는 농사에 관심이 없었다. 6년 전 세종시로 이사 오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다.

한 씨는 이전까지 청주에 살았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한동안 청주에서 살다가 자녀들이 분가하면서 남편과 함께 세종시로 이사를 왔다. 이사와 함께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텃밭이 집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씨는 2008년부터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의 원예반 수업을 들었다. 당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한 씨처럼 농사에 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원예반을 운영했다.

"그 전까지는 농사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도시에서는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그게 끝이었죠. 그런데 농사에 대해 배우다 보니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식탁에 오르는지를 알게 됐어요. 농사를 짓는 데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농민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농사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요."

한 씨는 올해 봄부터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듣고 있다.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농업의 이론과 실무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올해 3월 14일부터 진행된 이 교육에는 한 씨를 비롯해 3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 씨와 같은 이주민부터 토박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다니며 '화분 분갈이' 봉사 보람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듣고 있는 회원들은 '흙의 특성 이해하기' '일상을 아름답게 하는 텃밭 정원' '실외 텃밭 만들기 실습'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농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도시민 텃밭 김장 담그기 및 기부 행사'를 가졌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텃밭에서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등으로 만든 김치다.

11월 11일 기자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을 때 한 씨와 토착민인 이진자(52) 씨는 이틀 뒤에 있을 행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씨는 "봄부터 회원들이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6평방미터의 텃밭에 배추·갓 등의 다양한 야채를 키우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30여 명의 회원들은 배추 200포기로 김치를 담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담근 김치를 우리끼리 먹는 것보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나눠먹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듣고 있는 3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 11월 14일 직접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다. 이 김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김치 기부' 봉사 외에도 세종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무료로 화분을 분갈이해 주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분갈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씨는 "이 교육 과정이 지역봉사 외에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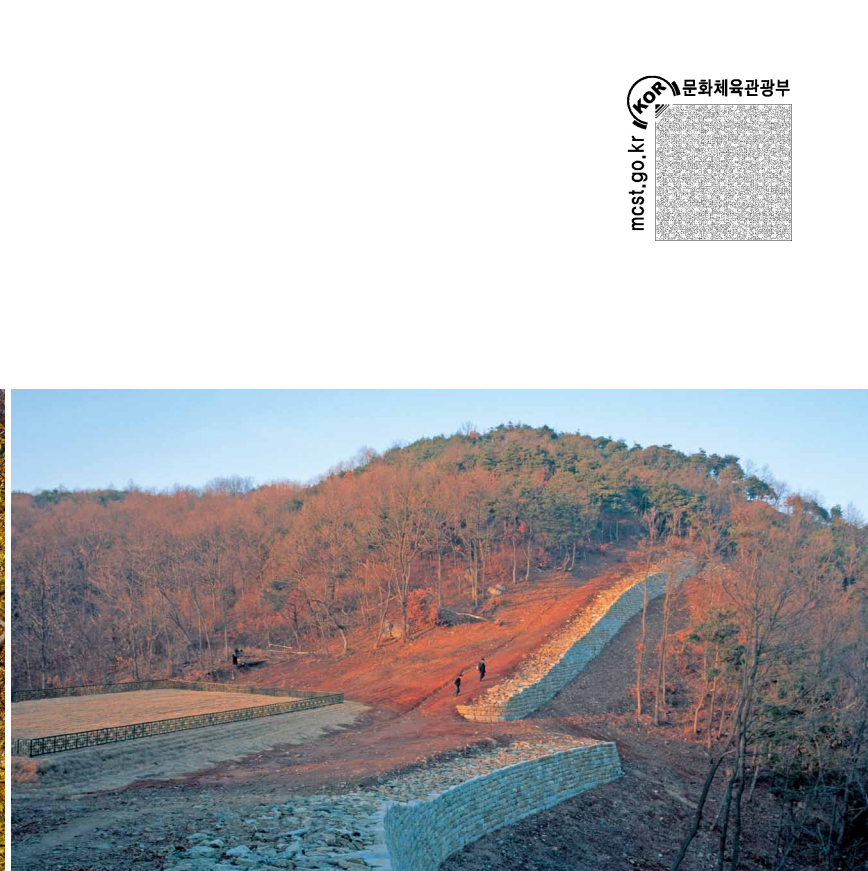
"교육 과정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어디서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재배되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직접 회원들이 지역 농가를 방문하는 코스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토마토 농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서 과일을 사다 먹어요. 되도록 우리 지역 농민들이 키운 야채를 먹는 게 좋잖아요."

이주민 한 씨와 토착민 이 씨는 함께 세종시의 텃밭을 일구며 친구로 지내고 있다. G

글·김혜민 기자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비암사의 가을 절경.

중앙포토

세종시의 유일한 자연공원인 고복저수지.

세종시의 대표 명산인 운주산.

세종시엔 역사·문화가 살아 숨쉰다

블로그기자단 "완연한 가을하늘 아래 옛 백제의 숨결 느껴보세요"

하루에 즐기는 세종시 둘러보기

세종시의 명소와 역사가 잘 담긴 대표적 장소인 전동면과 전의면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다녀왔습니다. 팸투어 코스는 고산사(전동면)→야호래(전동면)→비암사(전의면)→뒤웅박고을(전동면)로 정했습니다.

운주산성의 입구 쪽에 위치한 고산사가 출발지입니다. 고산사는 운주산성의 입구 쪽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이곳 고산사에서는 백제가 멸망한 매년 음력 9월 8일을 기해 고산제를 지내곤 합니다. 백제멸망기 의자왕과 부흥기의 풍왕,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하다 죽은 혼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산사 곳곳엔 법당 내부의 내불과 바깥의 외불, 고산제를 지내는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고산사와 운주산성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후 허기진 배를 달랠 만한 곳이 맛집 야호래입니다. 메밀싹 비빔밥과 다양한 반찬, 그리고 메밀동동주가 유명한 곳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전의면에 있는 비암사로 향합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절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가을이라 단풍도 아름답지만 흰 눈이 쌓인 겨울이나 꽃피는 봄에 와도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암사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창건 연도를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에 창건한 사찰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락보전 내 닫집(불상이나 불전의 위에 장식으로 만들어 단 집의 모형)은 그 제작 수법이 교묘하고 화려합니다. 비암사에서 발견된 국보 106호, 보물 367호 석불은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전동면에 위치한 뒤웅박고을입니다. 음식점이긴 하지만 세종시의 또 다른 명소입니다. 전통 장류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류 전문 음식점이며 식당을 가지 않아도 야외 조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주와 두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전통 장류 음식체험도 가능합니다.

글과 사진·김성엽 (세종시 블로그 기자단)

가을색 만연한 고복저수지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들의 재재거림이 가득했던 고복저수지 고복수영장으로 며칠전 가을맞이를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자연공원인 고복저수지는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와 고복리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1,949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저수지에 가물치·붕어·잉어·메기 등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낚시꾼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고복저수지 주변을 2015년까지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따라 조각공원, 낚시터, 잔디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5킬로미터에 이르는 순환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고복저수지 중간 지점에 '민락정'이 있어 정자에 올라 저수지를 관망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길로 각광을 받습니다.

고복저수지를 끼고 있는 주변 마을에는 포도·복숭아·배를 재배하는 과수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상업시설, 숙박시설, 각종 공공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을색이 만연한 고복저수지에는 현재 저수지 변을 걸을 수 있도록 데크 설치가 한창인데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세종시의 명소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글과 사진·조현화 (세종시 블로그 기자단)

세종시 대표 명산 운주산

운주산은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와 청송리 일대, 그리고 전의면 신정리·노곡리에 걸쳐 있습니다. 높이는 해발 460미터로 등산로 초입에 200여 미터에 걸쳐 침엽수가 잘 발달되어 있어 등산객들에게 솔잎향기 그윽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계곡을 따라 20여 분 등산을 하다 보면 서문지가 나오는데 성문으로 들어서면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팔각 정자와 평상이 있어 소풍 나와도 좋은 곳입니다.

운주산 정상에 올라가면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청주, 조치원, 멀리 진천의 산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세가 부드럽고 식생이 잘 발달하여 가족들과 가볍게 나들이하기에 딱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주산에 있는 유적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운주산성(雲住山城)이 있습니다. 산성의 둘레가 약 3킬로미터로 고대 산성 치고는 규모가 큰 산성입니다.

성 안에는 우물이 있고 건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외성과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산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문지와 동문지를 복원하였으며 동문지 성문은 어긋문 형태를 띠었습니다. 적군이 성문을 통과할 때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방어 형태의 성문입니다. G

글·윤은실 (세종시 블로그 기자단)

지구촌 평화 지키며 국익에도 기여

청해·오쉬노·아크부대, 파견연장 요구 잇달아… 국회에 파견연장동의안 제출

국방부

미소와 함께 내민 손은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만국 공용의 언어다.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원이 부대 내 진료소를 찾은 현지 어린이 환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 남수단. 우리에겐 고(故) 이태석 신부의 활동을 기록한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 알려진 남수단에서 우리나라 한빛부대가 지난 3월부터 유엔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재건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빛부대원 280여 명이 임무 수행 중인 곳은 남수단 동남부 보르(Bor) 지역. 한빛부대는 이곳에서 공항 확장 및 보수, 도로 보수 등 재건과 의료·주거시설 건립은 물론 진료소와 태권도·축구교실 운영 등 친근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

유엔 가입(1991년) 이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부대는 현재 한빛부대 등 모두 5개. 유엔 PKO 또는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등의 차원에서 파견된 이들 5개 부대 외에도 정전감시 요원 등 개인 파병요원들까지 15개국에서 1,160여 명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설 때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유엔 PKO 활동은 19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앙골라 공병부대,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부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등으로 이어졌다.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참여한 부대는 이라크의 서희·제마부대와 자이툰부대,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부대, 그리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다.

국제적 골칫거리인 해적 퇴치를 위해 2009년 파병된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전원 구출에 성공하는 등 지금까지 20차례 해적 선박을 물리쳤다. 또한 리비아 교민 철수(2011년 3월),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2012년 12월) 등 재외국민의 안전지킴이로 활약했다.

오쉬노부대의 경우 약 70명의 부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서 보건의료, 직업·경찰훈련 등 임무 수행 중인 한국 지방재건팀(PRT) 보호와 카불의 한국대사관 안전을 맡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으로 2011년 파병된 아크부대는 비분쟁지역에 대한 국방협력 차원의 첫 파병이란 점에서 그 성과도 다양하다. 아크부대는 UAE군과 함께 내무생활을 하며 '맨투맨'식 집중 교육으로 UAE군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특수전·대테러·고공강하·해상특전 등 팀별 훈련을 통해 UAE군의 기량을 20~40퍼센트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UAE군이 가진 훈련시설을 활용해 고공 야간강하, 장거리 저격사격, 해상 및 항공기 대테러 등 국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훈련으로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성과도 함께 얻고 있다.

UAE 총참모장 등 파병연장 요청 공식서한

UAE 거주 재외국민 수는 약 1만명. 중동지역 거주 재외국민(1만 9천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크부대의 존재감은 크다.

청해·오쉬노·아크부대가 올해 말로 파병 연장이 종료된다. 국방부는 이들 부대의 파병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평가단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작성한 부대별 해외파병부대 파견 연장동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을 요청했던 UAE 왕세자가 아크부대의 교육훈련 지원에 감사해 하며 아크부대를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간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UAE 총참모장도 공식 서한을 통해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가 지키는 아덴만은 우리나라 총 해운물동량의 30퍼센트(연간 약 2억2천만톤)가 통과하는 주요 전략수송로다. 2014년에도 약 500척의 우리 상선이 이곳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외교부,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등이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오쉬노부대는 한국PRT(지방재건팀) 건설사업이 2014년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어서 파병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유엔 PKO 파견 20주년을 맞아 해외 파병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유엔 PKO법)'에 '다국적군 파병활동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어 현재 정부는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를 기반으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협력 파병을 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아크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심의 당시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병에 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 상황을 검토하도록'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6월 송영근 의원이 '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년간 분쟁지역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해 온 해외 파병과 관련한 새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다 든든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구촌 평화와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

글·박경아 기자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후(1991.9.17) 부대파병 지역

■UN 평화유지군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자료·국방부

국방교류 효용성 높인 '군사외교관'

아크부대, UAE군 전투기술·전투체력 높이는 성과 거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 국방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UAE군사훈련협력단은 각각 해상과 육상에서 지구촌 평화 수호,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크부대장, 그리고 청해부대에서 합동훈련을 한 UAE군 장교가 현장에서 기고문을 보내왔다.

지난 20여 년간 펼쳐온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대한민국은 파병을 통해 '다국적군의 왕'(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신이 내린 선물'(이라크 자이툰부대), '신이 내린 선물이자 가장 친한 친구'(레바논 동명부대) 등 현지인들과 다른 국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파병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우리 군 최초로 국방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UAE군사훈련협력단'(이하 아크부대)이 창설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왕세자가 우리 군의 우수성에 매료되어 파병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UAE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유사시 중동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1진이 2011년 1월 UAE에 파병됐다.

기존 파병과는 다르게 비(非)분쟁지역에서의 군사협력과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역시 다른 파병부대들과 마찬가지로 UAE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 체감

먼저 우리 부대는 한·UAE 연합훈련으로 UAE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대테러사격술, 침투기술, 체력단련 등 UAE군에게 부족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전투기술과 체력을 향상시켜왔다.

더불어 한식과 전통 민속놀이, 인삼, K팝 등 각종 한국문화를 소개하면서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 부대원들도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사막의 모래폭풍이라는 악조건하에서 각종 전투기술을 연마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특수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UAE군의 훈련장과 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전투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광활한 사막에 건설된 강하훈련장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6~7년이 걸리는 고공강하 훈련을 6개월 만에 마쳤다.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원들이 고공강하 훈련을 하고 있다.

현지 반응도 뜨겁다. 먼저 모하메드 왕세자는 아크부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UAE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특전사의 근면성실함, 훈련에 대한 열정, 임무 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UAE군에 전해져 UAE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이제 평화유지군(PKO), 다국적군 활동뿐만 아니라 아크부대와 같이 국방 교류·협력을 위한 파병의 확대·강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익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전장환경에서의 전투기술 향상, 상호 군사교류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 그리고 국군의 위상 제고와 같이 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G

글·임종하(UAE군사훈련협력단장·중령)

청해부대서 '세 가지 특별선물' 받다

UAE 해군에 높은 전투기량 전수, 전우애·평화에 대한 열정 심어줘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명성이 높은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에서 함상근무 체험을 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음식도 달라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는데, 최영함의 현문을 오르는 순간 많은 장병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는 모습에 그 걱정이 사라졌다. 설렘을 가득 안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항에서 임무구역인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하면서 시작된 22일간의 긴 여정(10월 5~26일)이 끝난 지금 내 가슴속에는 동방의 친구로부터 받은 세 가지 선물이 값지게 빛나고 있다.

청해부대에서 받은 첫번째 선물은 한국해군의 높은 전투기량을 전수받은 것이다. 출항 다음날 청해부대와 UAE 해군 알 헤센(AL HESEN)함이 연합 해상기회훈련을 실시했다.

마치 오랫동안 팀워크를 맞춰온 것처럼 두 함정이 신속하게 정해진 위치로 기동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했던 전투배치 훈련은 청해부대 이름에 걸맞게 완벽했고, 승조원들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뿐만 아니라 매번 예고 없이 시작된 소화·방수 훈련은 화재나 침수 발생 시 함의 생존과 직결된 훈련이기 때문에 항상 실전처럼 강도 높게 시행됐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해군의 절도 있고 박력 있는 모습이었다. 승조원 모두가 함상예절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에 역시 선진 해군답다는 생각을 했다.

두번째 선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우애와 형제애를 얻은 것이다. 한국해군과 UAE 해군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형제 해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게 군사교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청해부대의 경우 연합기회훈련과 함상근무체험 파견근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수전부대 교육을 위해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에는 여명작전 이후 UAE측의 요청으로 한국해군 특수전여단(UDT)으로 구성된 해상작전팀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평소 한국해군을 내 전우이자 형제라고 생각했고, 짧은 기간 동안 청해부대 대원들과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었다.

최성목 전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승조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배려를 해 주었는데, 특히 음식 부분에 있어서 큰 감사함을 느낀다. 이슬람 교도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데다 한국 음식을 먹기 힘들어 걱정했는데, UAE 음식을 별도로 제공해 주었다.

대한민국이 준 선물, UAE 동료들에게 전달하겠다

마지막 세번째 선물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배운 것이다. 6·25전쟁과 남북분단의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장병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활동이 가장 활발한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에서 평화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자국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선을 대상으로 선박 호송 및 안전항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척의 상선도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해적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한국군의 강한 전투력은 평화에 대한 열정과 나라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값진 경험과 소중한 추억이 될 세 가지 선물을 가슴에 품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내가 받은 선물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UAE의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나중에 다시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누군가 내게 한국에 대한 경험을 묻는다면 K팝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국인 대한민국 청해부대를 경험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덴만에서 만난 청해부대 가족들이 그리울 것이다. G

글·세이프 사이드(UAE 해군 중위)

‘건강100세 시대’ 위해 생활체육하세요

국민생활체육진흥 ‘스마일100 프로젝트’ 확정… 전국 900여 곳에 ‘작은 체육관’ 설치

정부의 ‘스마일100 프로젝트’로 탁구와 같은 생활체육을 즐기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박의조(94) 할머니는 고령임에도 누구보다 운동을 즐긴다. 박 할머니의 하루는 배드민턴으로 시작된다. 1년 365일 배드민턴을 치며 체력을 단련한다. 최근엔 탁구에 도전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운동을 함께한다. 박 할머니에게 스포츠란 이처럼 젊게 장수하는 비결이다.

고령화 시대에 스포츠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의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때마침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올 8월 발표했던 ‘스포츠비전 2018’에 이어 11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1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을 담았다. 온 국민이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스포츠를 마음껏 즐긴다는 뜻으로 ‘스마일100 프로젝트’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이용욱 사무관은 “100세 시대 도래 등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이라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을 43퍼센트(올해 기준)에서 2017년 60퍼센트로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폐교, 도시지역 빈 파출소, 노인들의 이용이 저조한 경로당 등 유휴시설을 ‘작은 체육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전국 900여 공공시설에 시민들이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체육관이 조성된다.

또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과 낙도에는 간이 운동장비를 갖춘 스포츠 버스를 운행한다. 버스 안에 있는 간이 운동장비들로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받는 ‘작은 운동회’가 열린다. 스포츠 버스는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시·도당 1대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집중 육성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 동호회 위주의 생활스포츠 환경을 저비용·다연령·다계층·다종목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9개소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32개소, 2017년 229개소로 점차 확대한다.

‘스마일100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

항목	2013년	2017년	항목	2013년	2017년
체력인증 이용 국민(‘국민체력100’)	5만여 명	100만여 명	행복 나눔 스포츠교실	274개소	680개소
거점체력센터 설치	14개소	68개소	스포츠바우처(강좌)	3만6,000명	4만3,500명
작은 체육관 조성	–	900여 개소	종합형 스포츠클럽	9개소	229개소
움직이는 체육관 운영(스포츠 버스)	–	광역시·도당 1대	어울림 스포츠광장	434개소	1,000여 개소
생활체육지도자(일반·노인)	2,230명	2,730명	학교스포츠클럽 강화	3,000팀	5,000팀
생활체육지도자(장애인)	230명	600명	클럽간 지역리그 지원	1,780개 리그	5,340개 리그
노인복지시설 순회지도 및 용품보급	2,000여 개소	5,000여 개소	직장체육 활성화 지원	50개소	700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복지로 1인당 연간 의료비 46만원 절감 효과

또 누구나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소년·노인·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체육지도자를 양성한다. 지역별 대표 축제와 연계해 생활체육 한마당, 마을단위 생활체육대회 등을 열고 전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을 도입해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양한 생활 스포츠에 숙달된 달인들에게 부여하는 ‘스포츠활동 인증제’와 각 종목별 숙련 정도를 판정해 주는 ‘스포츠종목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번 스포츠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 외에도 진료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18조8천억원에서 2012년 47조8천억원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3조8천억원에서 16조4천억원으로 4.3배 증가해 노인들에게 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 체육활동은 1인당 연간 의료비 46만원을 절감해 국가적으로 1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이용욱 사무관은 “생활체육을 통해 여가 활용은 물론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등 스포츠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라며 “그간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일대 혁신하는 방향에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5개월여간 학계, 언론계, 체육단체, 지자체 등 30여 곳에서 50여 명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는 한편 문체부가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마련됐다.

글 · 이창균 기자

‘제2의 인생’ 설계 도와드립니다

은퇴 준비·은퇴 후 생활 등 베이비부머들이 원하는 맞춤정보 한자리에 모아

www.activebb.kr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화면.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 및 은퇴 후 생활을 돕기 위한 통합 정보 공간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베이비부머 관련 정부정책 및 통계자료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을 지난 4일 개설했다. 지금까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통계자료들은 기관별로 분산 제공돼 왔다. 이번 포털사이트는 베이비부머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은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통계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베이비부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노후준비·일자리·재무·건강·여가·자원봉사 등의 정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각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여러 기관이 따로 제공하던 것을 한데 모아 편의성을 높였다.

정보는 크게 관심이슈와 맞춤정보로 나뉘어 제공된다. 관심이슈는 취업·재무·여가 등과 관련된 각 기관의 최신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맞춤정보는 좀 더 심층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정보와 분야별 지식정보로 분류돼 있다. 사업정보는 시기별·분야별·지역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잘 정리돼 있다.

맞춤정보 내 분야별 지식정보 분야별 지식정보는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법·제도, 지원 정책 등이 카테고리별로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예컨대 여가 분야에서는 여행바우처와 문화바우처 제도를, 재무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의 정책을 알려준다.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을 이용해 본 사용자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뉴스를 보고 처음 접속해 봤다는 박홍식(55) 씨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해 봐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남형도 기자

베이비부머의 주요 관심사 ‘한눈에’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주요 관심사인 여섯 가지 분야의 각종 정보를 ‘관심이슈’로 모아 제공하고 있다.

① 노후준비 : 노후준비 정도 진단 및 결과 조회
② 일자리 : 베이비부머 관련 일자리(취업, 창업, 귀농귀촌, 교육, 자격증 등 정보 제공)
▶취업 : 중고령층 대상 취업 관련 정보
▶창업 : 창업 관련 지원책 및 교육정보
▶귀농귀촌 : 귀농귀촌 관련 자료 및 교육정보
③ 재무 : 연금, 부동산, 금융 관련 정보
④ 건강 : 건강 관련 상식 및 정보
⑤ 여가 : 문화예술 공연 정보 및 생활지원 정보
⑥ 자원봉사 : 국내외 자원봉사 정보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역제한 없앤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직원 특별분양분 미분양 물량 매입 허용

앞으로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특별분양분 가운데 미분양 물량을 사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고, 다만 경쟁이 생기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지만, 그 전에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뜻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택 한시적 특별공급 허용

이전기관 청약률이 전국 평균 30퍼센트대로 낮은 데다 주거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을 전후로 직원들의 주거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전기관인 법인은 현행 법률상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받을 수 없다. 이전기관 법인들이 특별분양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 기회가 거의 없었다.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 조항석 사무관은 “전체 물량의 최대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법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겨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들은 앞으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영구·국민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최초 입주 단지인 서울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 모습.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이미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준주택은 기숙사와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G

글·박미숙 기자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격요건**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영구임대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

“앱 하나로 직장인들 ‘출근 전쟁’ 끝!”

아이디어 기획부문 대상 Beeline팀 “시간 낭비 없이 가장 빠르게 사무실 안내하죠”

전민규 기자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지각하게 되는 고충을 해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한 유한종(왼쪽 · 부경대) 씨와 이학수(오른쪽 · 전남대) 씨는 ‘출근 전쟁’을 멈추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지훈(가명·30대)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른다. 이 씨는 평소 오전 6시에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 안양에 위치한 직장으로 향한다. 보통은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거리이지만 준비 시간이 길어져 평소보다 늦게 출발을 하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한 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보내야 한다. 이 씨는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긴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준다”며 “직장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빨리 회사에 갈 수 있는지 등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수 개월 후 이 씨와 같은 직장인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직장인들의 ‘출근 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앱을 만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3.0 정책에 맞춰 신선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창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회의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Beeline팀의 이학수(24) 씨와 유한종(25) 씨는 이지훈 씨처럼 ‘출근 전쟁’을 치르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앱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씨는 전남대 컴퓨터공학과에, 유 씨는 부경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다. 이 팀은 대학생 두 명과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해준 LG CNS의 강석태(40) 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Beeline은 ‘꿀벌의 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꿀벌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직행하다’ ‘최단거리’ ‘일직선’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직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팀과 앱의 이름을 ‘Beeline’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날씨,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인들이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앱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출근 준비 중’이다. 이용자가 앱을 켜면 그날 이용자의 집, 직장의 날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퇴근 때 비와!’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가 우산을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준다. 또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늦지 않고 직장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집에서 얼마 후에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2단계는 ‘정류장까지 걷는 중’이다. 이 단계에서 이용자는 정류장까지 남은 시간, 탑승 열차 도착 시간, 대중교통 도착 시간 및 탑승 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상황, 위치에 따라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이용자는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단계는 ‘버스 기다리는 중’이다. 이용자들은 다음에 환승할 대중교통이 언제 도착하는지, 탑승 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영어 회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앱은 날씨, 대중교통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씨는 “원래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대회에 참여하면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속속 공개되는 공공데이터 활용하면 창업 폭 넓어져”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기상, 지리, 재정 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4,570여 건의 공공정보를 공개해 왔다. 특히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6,150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 비율이 14퍼센트(2,260종)에서 40퍼센트로 월등히 높아진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eeline팀도 이 앱을 활용해 창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 씨는 “아직 언제 창업할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도 “앱의 아이디어가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마케팅, 홍보 등의 부문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므로 이런 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eeline팀은 국무총리상과 각각 2천만원의 사업자금이 제공됐다. 청년위원회 청년발전부 정병규 부장은 “이들의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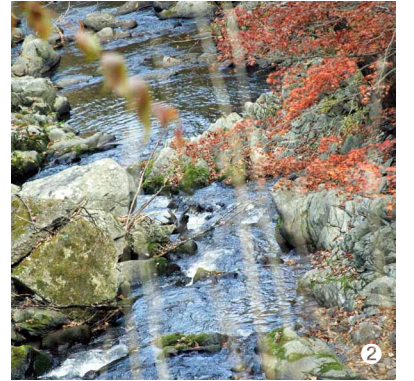
글 · 김혜민 기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자료 · Beeline

강원 홍천 살둔마을

눈가에 잠시 앉아있던 가을은… 슬며시 떠나갑니다

때때로 코끝을 매섭게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문득 가을과 겨울 그 어디쯤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비단 계절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마음에도 슬며시 가을의 페이지를 넘기는 서늘한 바람이 인다. 무성하던 녹음도 그만 지쳐 노랗고 붉은 잎을 떨구고 가슴도 한 자락 그리움을 떨군다.

1 산속에 아늑히 둘러싸인 살둔마을.
2 문암골 트레킹 코스는 옆으로 계곡을 끼고 걷는다.

마음이 계절을 따라가는 것인지 깊은 가을, 몸과 마음이 온통 붉다. 숲이 그렇고 산이 그렇고 길이 그러니 마음 또한 그렇다. 뜨거워서 붉은 것이 아니라 차가워서 붉다. 붉지 않으면 이 깊은 가을을 견뎌낼 수가 없다. 붉게 떨어져야 살아남는 계절이다. 기어이 죽어야 살 수 있는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란 없다. 그 짙은 소멸의 붉음 속에서 고집불통으로 엉켰던 마음도 한꺼풀 옷을 벗어야 할 때다.

어딜 가도 사람 많은 단풍철, 너나 할 것 없이 알록달록 무지개색으로 나들이 옷을 차려입은 관광객에 치여 정작 가다듬고 싶던 마음 한 자락 부려놓을 곳을 찾기가 어렵다. 사람들 드문 곳 어디에라도 숨어들고 싶은 이맘때 단풍놀이에서 살짝 벗어난 홍천의 깊은 마을로 들어간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끔은 더 이상 구경꾼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함께 밟고 사는 사람으로 그곳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다.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한 열흘, 아니 사나흘 무작정 눌러앉아 있고 싶은 곳, 살둔마을이 바로 그런 곳이다. 오죽하면 마을 이름이 '살 만한 둔덕', '살둔' 일까.

완행버스 타고 한 고개 두 고개 '산속의 오지'

홍천 시내에서 살둔마을로 들어가려면 서울에서 홍천 왔던 거리만큼 더 가야 한다. 홍천버스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타도 한 시간, 그나마 완행버스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유랑하며 갈라치면 살둔마을까지 한 시간 반은 족히 걸린다.

홍천 시내에서 살둔마을로 가는 이 길도 1990년대 초에 뚫린 길이라 하니 그 전엔 정말 오지 중 오지였을 테다. 해발 1,500미터가 넘는 산들에 둘러싸인 살둔은 〈정감록〉에 숨어 살기 좋은 곳으로도 이름을 올렸을 만큼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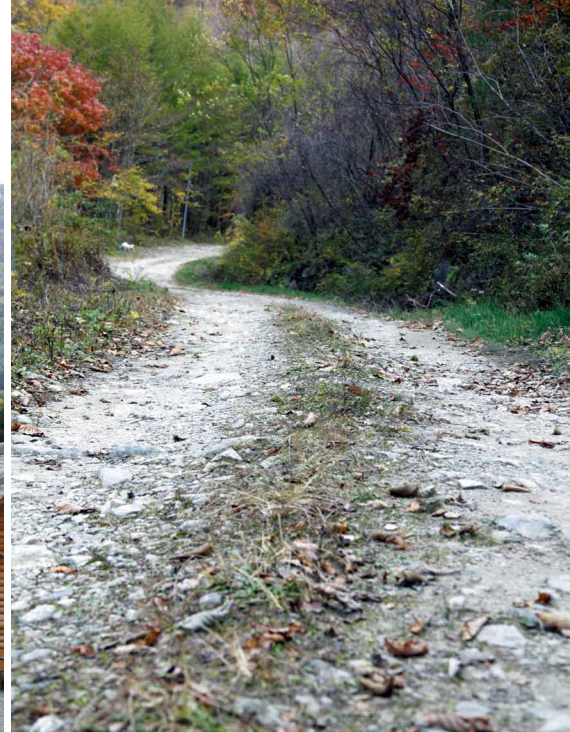
버스를 탄 몸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피를 잡지 못한다. 숱하게 고개를 넘고 간간이 마을을 지난다. 쭉 뻗은 도로 같은 것은 없다. 멀미가 날 만큼 이리 돌고 저리 도는 버스가 직선을 향하던 고집스러운 마음을 은근히 풀어놓는다. 오랜만에 구부정 돌아가게 만든다. 속력을 내려야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는 길 앞에서 스스로 줄이지 못했던 인생길의 속도가 슬며시 줄어든다.

가는 길에 재를 두어 번 넘는다. 옛날이라면 봇짐지고 걸어서 넘었을 재다. 모터를 단 거대한 상자를 타고 가만히 앉아 쉽게 넘는다. 창밖으로 비치는 광경은 여행의 서막을 알린다. 산골에 기대 사는 사람의 모습들이나 스쳐 지나가는 시골마을의 풍경이 시나브로 딱딱했던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만든다.

그렇게 한 시간 이상 달리다 보면 마침내 산속에 폭 안긴 살둔마을에 닿는다. 살둔마을에는 40여 가구가 산다. 사실 토박이는 별로 없다. 남아나지 못했다.

"지금은 거의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나마도 3분의 1 정도는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두메산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거의 떠나고 없어요. 가난한 토박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난 자리에 외지인이 들어와 현대식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주인 없는 땅이 없죠. 이제 가난한 시골마을이 아니라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마을이 됐어요."

살둔에서 나고 자랐다는 살둔마을 이태호 사무장의 말이다. 그 역시 젊은 날 도시로 나가 살다가 살둔을 잊지 못하고 다시 고

살둔마을에서 공동 운영하는 나무펜션 다섯 동.

문암골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가을에 안긴다.

폐교를 활용해 만든 생둔분교 캠핑장.

걷고 싶은 길로 꼽히는 문암골 트레킹 코스.

살둔마을 옆 문암골 트레킹 코스

사람 드문 길… 눈이라도 오면 더욱 좋은 길

해발 고도가 높아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살둔에는 겨울이 더 빨리 찾아온다. 10월 셋째 주만 해도 핏빛처럼 붉게 타던 문암골 트레킹 코스는 이제 잎을 모두 떨구었다. 그래도 그 고즈넉한 길만은 언제든 사람을 반긴다. 주말이라도 마주 걷는 이를 거의 만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 도시인에게는 더 매력적이다.

살둔마을에서 천(川) 하나만 건너면 바로 문암골 트레킹 코스이지만 천에 다리가 없어 찻길로 3~4킬로미터 정도 돌아나가야 트레킹 코스의 시작점을 만날 수 있다. 차가 없다면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다. 차가 다니는 큰길의 언덕에서 큰 바위에 새겨진 호랑소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면 길이 시작된다.

이 코스는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걷고 싶은 길'로 불리기도 한다. 편도 4~5킬로미터, 왕복 8~10킬로미터로 율전2리가 끝나는 삼거리 지점까지 걷다가 돌아나오면 된다. 계속 걸어가면 율전3리가 나오고 길은 임도를 따라 하염없이 뻗어나간다. 한 시간 남짓 걸어 작은 다리가 있는 삼거리가 나올 때까지는 외길이다. 혼자라도 2~3시간 걷기 코스로 그만이다. 깊은 마을, 더불어 깊은 산길에서 오로지 자신의 발걸음 소리와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사색하기에 좋다. 오르내림도 없다. 굳이 등산화가 아니라 단화 정도만 신어도 걷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 길은 여느 숲길처럼 나무가 울창한 길이라기보다는 계곡을 옆에 끼고 걷는 임도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엔 그리 걷기 좋은 길이 아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가을에 걷기 좋다. 겨울엔 겨울만의 알싸한 운치가 있다. 눈이라도 온다면 금상첨화다. 길이 평이해 눈 쌓인 길도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저대로 순수한 자연을 입고 벗으며 나름의 생을 펼치는 길 위에서 걷는 이의 삶까지 숙성시킬 수 있는 기회다.

향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이것저것 마을 일을 도맡아 하며 살둔에서의 제2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추위와 가난을 등지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도시와 경쟁에 지쳐 순수한 자연을 찾아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사이 세월이란 놈은 옛 산골마을의 허름한 집들을 모두 현대식 건물로 바꾸어 놓았다.

흙집, 초가집을 기대하고 왔던 내가 바보인가. 하지만 마을을 둘러싼 자연만큼은 아직 건재하다. 맑게 흘러내리는 내린천과 살둔을 휘돌아 나가는 살둔계곡, 마을을 둘러싼 방태산 줄기의 산자락과 그에 걸맞은 맑은 바람과 햇빛은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 폐 깊숙한 곳까지 치고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역시 아직 그대로다.

캠핑·펜션·민박, 어디든 마음 가는 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살둔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다. 폐교를 활용해 만든 생둔분교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오지에서의 캠핑은 자연 속에 오롯이 묻혀 주말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캠핑장 옆 살둔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른다. 사이트 구획이 명확한 다른 캠핑장에 비해 생둔캠핑장의 매력은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에 있다. 학교 운동장과 계곡 주변으로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치면 되는데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없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고 평일에도 꽉꽉 차는 여름 성수기와는 달리 가을부터는 사실 주말에도 캠핑객이 드물다.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제격이다.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주니, 인근으로 한가롭게 자전거 산책을 해도 좋다. 캠핑장의 하루 이용료는 텐트 1동당 평일엔 2만5천원, 주말과 성수기엔 3만원이다. 다만 겨울에는 캠핑객이 거의 없어 전기와 온수를 공급하지 않고 캠핑장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

운동장과 계곡 옆을 합쳐 총 30동 정도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생둔캠핑장은 살둔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수익금은 마을의 공동기금이 된다. 옆으로는 펜션 5동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캠핑이 번거로운 때라거나 겨울이라면 펜션에 머물러도 좋다. 삼나무로 지어져 실내에 앉아 있어도 짙은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자연에 안긴 듯 쉴 수 있다. 여름엔 펜션에 머무는 여행객에게 특별히 캠핑사이트 한 동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 옆, 독특한 느낌의 살둔산장에서도 살둔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머물 수 있다. 산장은 일본식 가옥과 사찰이 혼합된 형태로 1층엔 방 3개가 있고 2층엔 차를 마시며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실이 마련되어 있다. 마당에서 캠핑도 할 수 있다. 1년 내내 캠핑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 사이트 1개당 평일엔 3만원, 주말엔 4만원이다.

마을 사이트에 들어가면 살둔마을 민박도 취향에 맞게 예약할 수 있다. 살둔에 잠시 머무는 방법은 이렇듯 여러 가지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곳이 살둔이다.

살둔에 와 본 이들은 말한다. 교통이 불편해서, 오지여서 좋다고.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사람만 찾아오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미 도시에 부려놓은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어느 때 한가로이 살둔에 안겨 인생길의 온갖 피곤을 잊어보는 건 어떨까. 문득, 소복이 눈 내린 살둔마을의 겨울이 궁금해진다. G

글과 사진·이송이(여행작가)

여행수첩

살둔마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83
홈페이지 saldun.invil.org, ☎ 033-434-3798
생둔분교 캠핑장 강원도 홍천군 내면 내린천로 638
문의 이태호 사무장 ☎ 010-5279-0366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홍천IC로 나온다. 홍천에서 56번 국도를 타고 오다가 서석면 풍암리, 내면 창촌, 광원리를 거쳐 모래소 표지판에서 좌회전하면 율전리다.

동서울터미널에서 홍천 가는 버스는 자주 있지만 홍천터미널에서 내면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 7~8회밖에 없으니 시간을 잘 계산해야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홍천터미널→내면 : 6:45, 7:10, 8:00, 9:45, 12:00, 13:00, 14:00, 16:40, 18:40). 하지만 내면에서 다시 살둔마을까지 가는 15킬로미터 정도는 아예 교통편이 없어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살둔마을까지 접근하기는 어렵다.

율전식당 한식, 홍천군 내면 율전리 1525 ☎ 033-435-0833
진부식당 한식, 홍천군 내면 율전리 1524-33 ☎ 033-435-8392
밤바치양념구이 돼지구이, 홍천군 내면 율전리 778 ☎ 033-433-9295

살둔마을 통나무펜션 홍천군 내면 율전리 221-1 ☎ 070-7793-0366, 010-5279-0366, 홈페이지 saldun.invil.org
살둔산장 홍천군 내면 율전2리 267 ☎ 070-7793-0366
안깨산장 홍천군 내면 율전리 270-2 ☎ 010-3075-8421

노루의 귀를 닮았나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 북사면 산기슭 숲속 그늘에는 노루귀가 자란다. 봄 일찍 남부지방에서 3~5월에 꽃핀다. 남부지방 남녘 바다 근처로 갈수록 붉은 꽃 색깔을 띤 것들이 많이 핀다. 자주색, 흰색, 붉은색 꽃 모두 노루귀의 같은 종(種)이다. 간혹 꽃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많다. 제주 한라산 북사면 숲속 그늘이나 바위틈에는 새끼노루귀가 흰 꽃을 피운다. 이 종은 풀잎에 짙은 색의 얼룩 무늬가 있어 쉽게 구별된다. 꽃은 약간 작지만 식물은 노루귀보다 잎이 더 큰 편인데 이곳에서는 새끼노루귀라 불린다.

울릉도 성인봉 숲속에는 한국 특산식물(토종식물)인 나무와 풀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대개 '섬'이란 말이 앞에 붙어 구별되도록 했다. 섬초롱꽃, 섬백리향, 섬노루귀 등이 있다. 이 중 섬노루귀가 풀잎이 가장 큰 편으로 꽃이나 풀잎 등 노루귀 중 가장 아름답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른봄 3월이면 이들 섬노루귀들을 화훼농가에서 다량 재배해 시장에 내놓는 인기 품목 중 하나였다. 노루귀는 생명력이 강인해서 농가에서 재배해 시중에 팔아도 그것을 집 안에 심으면 여러 해 동안 꽃을 피운다. 대개는 예쁜 화분에 심어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따뜻한 온실이나 실내에 두는데, 이러면 이들은 곧 생명을 잃는다. 야생화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낼수록 꽃이 더 아름답게 잘 피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야생식물들의 특성 중 하나다. 늘푸른잎의 남쪽 식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눈 속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다.

야생화들, 특히 노루귀의 이름은 꽃 밑에 붙은 꽃싸개잎(포)이 노루귀 모양으로 세모꼴이며 가장자리에 긴 흰 털이 많이 나 노루의 귀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중 섬노루귀가 더 많이 닮은 편이다.

필자는 1980년대쯤에 섬노루귀를 찾아보려고 울릉도를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다. 하지만 섬 지방은, 더구나 봄철일 경우에는 내가 바라는 시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이야 쾌속선과 큰 여객선이 수시로 드나들지만, 당시는 어쩌다 서두르면 꽃이 피기 전에 도착하고 어느 때는 꽃이 지고 난 후에나 당도하기 때문에 헛고생만 하고 왔다. 이 작은 야생화 한 송이의 아름다운 사진을 얻으려면 운이 좋아도 1년 만에야 얻을 수 있었다.

울릉도에서 만난 우리의 야생화 섬노루귀.

3~5월 이른봄 울릉도에 갈 일이 있다면, 산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낮은 지대 북사면 그늘 속을 눈여겨 살펴보면 섬노루귀를 만날 수 있다.

어느 섬노루귀는 근 십 년이나 걸려서야 꽃과 열매의 모습을 모두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우리 땅에 사는 많은 야생화들 가운데는 자원식물(資源植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개중에는 이미 원예자원이 되어서 시장에 나오는 종(種)도 있다. 그러나 꽃을 찾아다니다 보면 또 새로운 종을 만날 수 있다. 필자는 40여 년 동안 야생화를 찾아다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종을 만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야생화의 종이 풍족한 것은 아니다. 야생화의 종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산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꽃을 꺾거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뿌리째 파내는 일이 있다. 한 번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야생화는 다시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 우리 꽃 야생화를 사랑한다면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식물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쉬운 말로 깃대종 식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G

글과 사진·김태정(한국야생화연구소장)

서자들, 역사의 전면에 서다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의 설움이 잘 표현돼 있다.

조선시대 서얼은 기술직 종사자, 관청 서리, 지방 향리와 함께 중인(中人)의 한 축을 형성한 신분이었다. 양반의 첩 자손이었던 서얼들은 양반 중심 사회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 양반의 특권을 소수만 갖게 하기 위해 적자(嫡子)에게만 그 특권을 주고 서얼은 중인으로 전락시켜 신분적 차별을 가한 것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군주 정조는 서얼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1777년(정조 1년) 서류(庶類·서얼)들을 소통(疏通)시킬 방도를 강구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얼들이 청직(淸職)이라고 지칭되는 주요한 기관에는 진출할 수 없음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정조는 하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 설립한 규모에 있어 명분(名分)을 중히 여기고 지벌(地閥)을 숭상하여 요직(要職)은 허통(許通)시켜도 청직(淸職)은 허통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미 옛사람이 작정(酌定)하여 놓은 의논이 있다. 지난해 대각(臺閣)에 통청(通淸)하게 한 것은 실로 선대왕께서 고심한 끝에 나온 조처였는데 그 일이 구애되는 데가 많아 도리어 유명무실한 데로 귀결되어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뜻을 토로한 바 있다.

이어 "아! 필부(匹夫)가 원통함을 품어도 천지의 화합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인데 더구나 허다한 서류들의 숫자가 몇 억(億) 정도뿐만이 아니니 그 사이에 준재(俊才)를 지닌 선비로서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라고 통탄하면서 능력이 있는 서얼들의 적극 등용을 지시하였다.

정조의 지시에 의해 마련된 1777년의 서얼 허통 절목은 서얼의 신분 상승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법이었다. 15세기까지만 해도 서얼에 대한 차별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면서 서얼은 중인으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서얼들은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처럼 아버지가 있으되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 차별에 불만을 품은 서얼이 조직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사건은 1613년 일곱 명의 서얼들이 주도한 은상(銀商) 살해 사건이었다. 이들 서얼의 거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홍길동전〉 저술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서얼들은 자신들도 양반처럼 관직에 차별 없이 등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얼 허통 상소문을 계속 올렸다.

그러나 인조, 현종, 숙종 연간 이들의 요청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영조 대에 이르러 서얼 허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숙빈 최 씨가 궁중의 무수리 출신으로 후궁이 되어서인지, 영조는 서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1772년(영조 48년) 영조는 통청윤음(通淸綸音)을 내려 서얼을 요직에 등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법률로 다스리도록 하는 등 서얼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영조의 서얼 허통 정책을 계승한 정조는 1777년 서얼 허통 절목을 마련하여 서얼의 관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최고의 학문 기관인 규장각에 능력 있는 서얼들을 대거 등용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이 그들로서, 이들은 규장각의 핵심 요직인 검서관(檢書官)에 임명되어 사검서(四檢書)로 칭해졌다.

정조 시대 서얼 출신 학자들은 조선 후기 북학(北學) 수용과 문화 운동의 주역이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세기에도 이어져 서얼 출신 실학자 이규경은 동도서기(東道西器 :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을 수용함)를 바탕으로 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라는 백과사전을 남겼다. 서얼들의 노력은 1859년 대구의 달서정사에서 간행된 〈규사(葵史)〉에서도 확인된다. 〈규사〉는 해바라기를 뜻하는 '규(葵)'자를 넣어 해를 향한 해바라기처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 없음을 약속한 서얼들의 역사 기록이다. G

글·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연탄 절약이 에너지 절약

에너지절약! 연탄한장·석유한방울·전기한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

❶ 겨울동안 각 가정에서 매일 연탄 한장씩 절약하면 약 350만톤 (800억원)의 석탄이 절약됩니다.

❷ 정부가 제조허가한 화덕("열"자표가 붙어있음)을사용하면 화력도 좋고 시간도 오래가며 연탄가스도 적게 나옵니다.

❸ 화덕덮개는 철판보다 내화물로 만든것이 방을더 뜨겁게 하고 연탄가스도 적게 나옵니다.

❹ 아궁이 공기구멍 관리를 철저히하여 연탄을 절약합시다.

❺ 깨진연탄은 알뜰히 모았다가 교환하여 씁시다.

大韓石炭公社

韓国煉炭工業協会

1979년 8월 20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연탄공업협회의 '에너지 절약' 광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러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보내기' 행사나 동절기에 대비한 '연탄 사용가구 안전점검 및 연탄지원' 행사를 벌인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훈훈한 행사다. 작은 정성을 모아 소외 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아쉽다.

연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에서 취사나 난방용으로 사용되었다. 1960~70년대만 해도 주된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건설된 대규모 연탄공장에서는 많은 연탄을 찍어냈다. 당시의 부엌 구조 역시 연탄 사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 온돌에다 연탄불을 피우면서 연탄의 맹독성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연탄공업협회의 공동 광고 '에너지 절약'(경향신문 1979년 8월 20일)을 보자. '에너지 절약! 연탄 한장·석유 한방울·전기 한등'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광부가 탄광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했다.

광고 문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핵심 전략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정리했다. "가정에서 매일 연탄 한 장씩 절약하면 약 350만톤(800억원)의 석탄이 절약되고, 정부에서 허가한 '열' 자 표시의 화덕을 사용하면 화력이 좋다. 또한 내화물로 만든 화덕 덮개가 방을 더 뜨겁게 하고 연탄가스도 적게 나오게 하며, 아궁이 공기구멍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연탄을 절약할 수 있고 깨진 연탄은 알뜰히 모았다가 교환해서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탄을 절약하자는 광고의 헤드라인에 '석유 한방울·전기 한등'이라는 다소 엉뚱한 메시지를 넣은 것은 요즘 기준에서 볼 때 분명 상관성이 떨어지는 구성이다.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실천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리라.

대한석탄공사는 창립 60여 년이 지났고 지난해 말까지 석탄 생산 누계 1억 8천만톤을 넘어섰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눈을 돌려야 할 터이다.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는 누군가를 위해 활활 타오르다가 결국은 재로 남는 연탄에 빗대어 남을 위해 자기 몸을 한번도 뜨겁게 달궈본 적이 없는 우리네 이기심을 질타하고 있다.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는 '행사'가 아닌,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뜨거운 마음이 정녕 절실한 때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기심 절약에도 앞장서야겠다. G

글·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속이 시원~한 황태해장국

중앙포토

명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생선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소비량 1위로 오징어와 고등어, 갈치 등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며 국민생선의 자리에 등극해 있다.

명태만큼 다양한 호칭을 가진 어류도 없다. 그 명칭은 지방마다 다르며 가공 방식이나 잡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기본적으로는 갓 잡아 싱싱한 것은 생태, 꾸덕꾸덕하게 반건조 상태로 말린 것은 코다리, 얼린 것은 동태, 바짝 말린 것은 북어,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수없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노릇노릇 말려진 것은 황태라고 한다.

건조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구성되는 명태 족보의 정점에 있는 것이 황태이다. 황태는 말린 명태라는 점에서는 북어와 사촌지간이다. 그러나 북어가 주로 바닷가에서 건조되는 반면 황태는 한겨울에 내장을 제거한 명태를 내륙의 산간지방으로 옮겨서 차가운 바람 속에 냉동과 해동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동결건조(凍結乾燥)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말리는 과정의 정성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맛과 가치도 다르다. 12월 초겨울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약 4개월간 밤이면 영하 15도 아래의 추위에 꽁꽁 얼고 낮에는 햇볕에 살짝 녹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황태로 변한다. 마른 후에도 외형은 물에 불린 것처럼 통통하고 윤기가 나며 속살은 누렇고 보슬보슬한 것이 부드럽다. 더덕처럼 연하게 부풀어 고소한 맛이 나는 북어라 하여 '더덕북어'라 부르기도 한다.

황태를 말리는 덕장은 일교차가 커야 하는 동결건조의 조건 때문에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은 곳을 최적지로 꼽는다. 원래 동결건조법은 8·15 광복 전 명태의 주산지였던 함경남도 신포에서 오래 전부터 발달한 것이다. 더덕북어도 신포에서 나는 최상급 황태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6·25전쟁 이후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휴전선 부근의 속초 등지에 정착하였는데, 그때부터 고향과 기후 조건이 흡사한 미시령과 대관령 일대에 덕장을 세워 황태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두 지역이 황태의 명산지가 된 유래이다. 황태를 만드는 과정은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황태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30여 차례나 손이 가야 하는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황태 요리는 다양하다. 해장국, 찜, 전골, 구이, 부푸러기, 볶음, 무침, 냉면 등을 만들어 먹지만 가장 친숙하기로는 역시 황태해장국이 아닐까 싶다. 주당들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속풀이 음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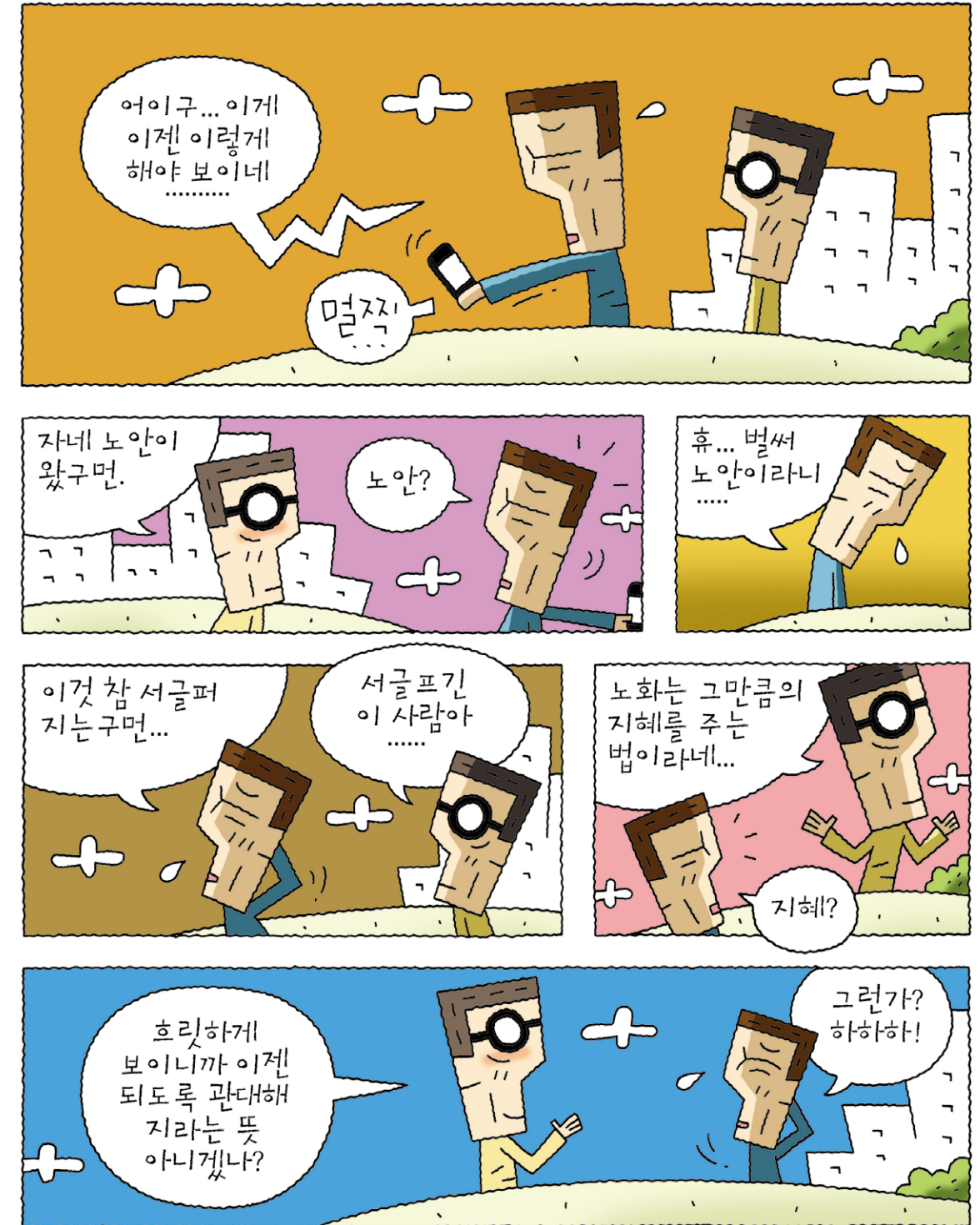
황태해장국은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것이 얼핏 보기에 설렁탕이나 곰탕과 비슷하지만 맛은 훨씬 개운하고 담백하다. 황태의 국물은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나서 과음한 다음날의 해장에는 그만이다. 황태에는 메티오닌(Methionine)을 비롯한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간 기능의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근년 들어 우리나라 근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명태는 대부분 러시아의 베링해 부근에서 잡아온 것이다. 일찍이 명태가 북해에서 나기 때문에 북어라 이름 붙인 선조의 혜안에 찬사를 보내야 하는 것일까. 러시아산 명태라도 강원도 산간의 눈바람을 맞으며 황태로 거듭나는 것이니 그나마도 다행이라 자위해야 할 형편이다.

인제 용대리의 '용바위식당'과 대관령 횡계의 '황태회관'은 덕장으로 유명한 두 동네에서 황태 요리로 오랜 세월 이름을 떨쳐온 식당들이다. 서울에서는 삼성동의 '황태명가'에서 아쉬운 대로 시원한 국물 맛을 볼 수 있다. G

글·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나이가 주는 지혜

글과 그림 · 최영순

나이 40세는 청년의 노년기, 50세는 노년의 청춘기다.
– 빅토르 위고(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세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견딜 때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꿈을 잃어도 살아야 한다"

연극 〈세 자매〉

"살아야 한다. 살자!" 자신들의 꿈이 무너진 순간에도 이들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아름다운 꿈은 현실을 만나면서 조금씩 위축되지만, 현실이 힘들수록 삶에 대한 의지는 더욱 불타오른다. 연극 〈세 자매〉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인 이 작품은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군인 유족인 세 자매와 그 자매의 가정을 배경으로 한다.

안톤 체호프는 이 작품을 통해 각자 희망하는 꿈과 현실 간의 괴리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딛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극의 후반부에서 마샤, 일리나, 올가 세 자매가 꿈을 잃은 후 "살아야 한다. 살자!"라며 끊임없이 다짐하는 장면은 고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문삼화는 작품의 비극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보다 각 등장인물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복잡한 정서와 감정을 연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마치 현실 속에 살아 있는 듯한 인물로 세 자매를 새롭게 창조했다. 이를 위해 연출가는 체호프의 문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와 은유를 강조하고, 인물의 대사를 현재 시점에 맞게 다듬었다.

〈세 자매〉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 자매는 살아갔으며, 그들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자의 독특한 개성만큼 호흡이 중요한 세 자매 역은 우미화, 김지원, 장지아 등 실력파 배우들이 맡았다. 2011년 서울연극제와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연기상을 석권한 우미화(올가 역), 2013년 〈일곱 집매〉에서 아픈 역사를 살아간 어머니들의 한을 잘 표현해낸 김지원(마샤 역), 제17회 히서연극상에서 '기대되는 연극인상' 부문을 수상한 장지아(일리나 역)는 "진짜 세 자매 같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글 · 김혜민 기자

기간 12월 1일까지 **장소**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문의** ☎02-580-1300

공연

웅산과 프로젝트 그룹

11월 28일 재즈 가수 웅산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함께 어울리는 무대가 펼쳐진다. 중저음의 농염한 목소리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하는 웅산과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재즈피아니스트 김가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재즈의 모든 선입견을 깨다'로 관객을 즐겁고 신나는 재즈 여행으로 안내한다는 게 목표다. 웅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한국과 일본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뮤지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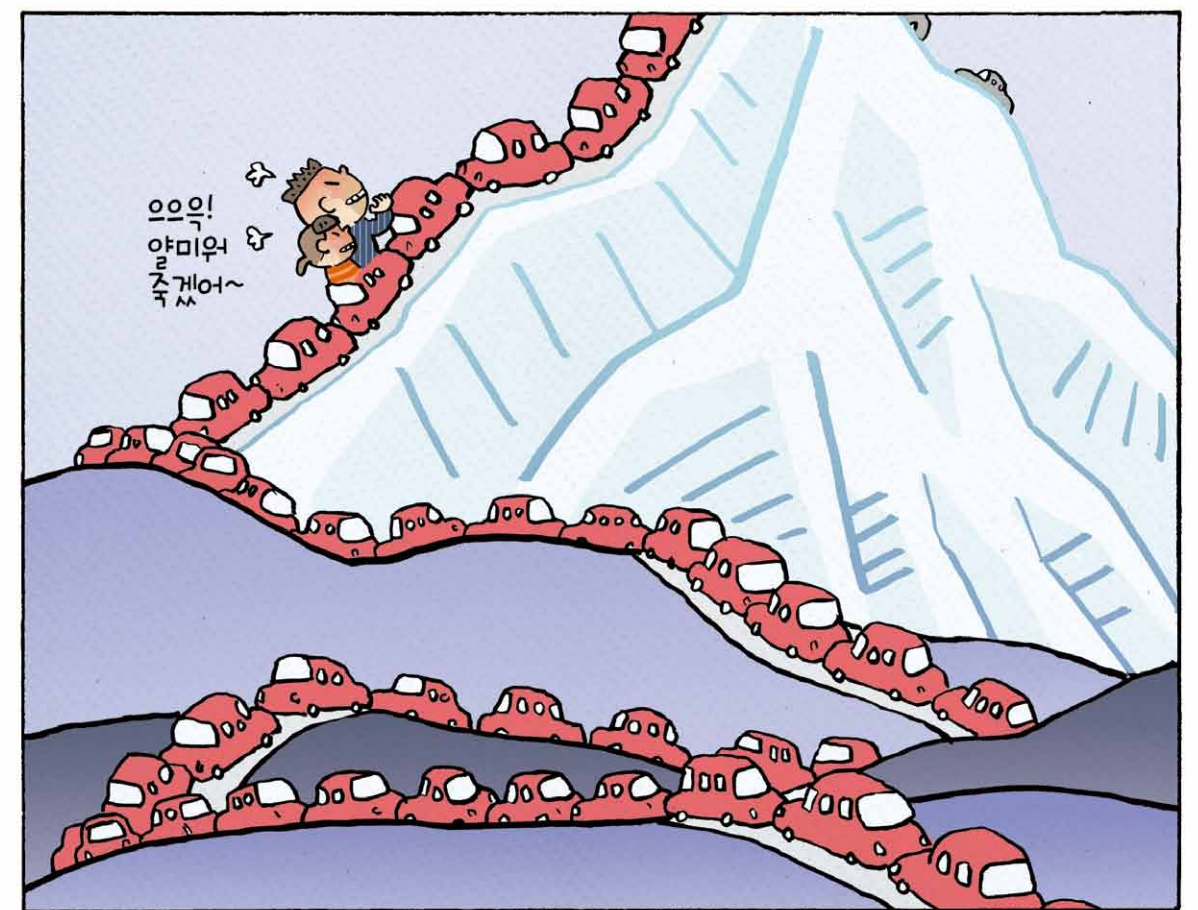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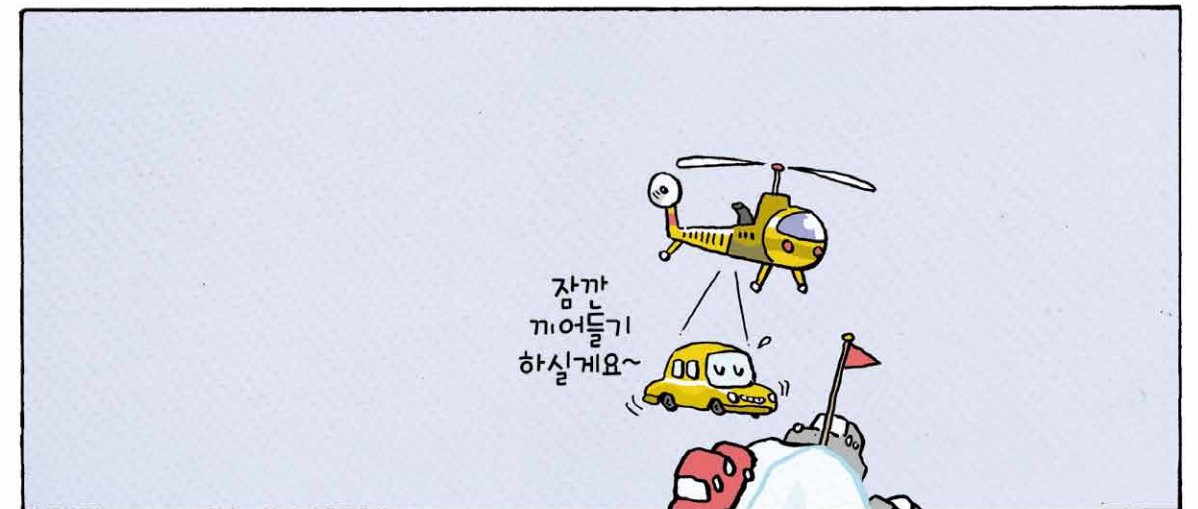
일시 11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경기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문의 ☎ 1577-7766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

미국 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높이 평가한 세종솔로이스츠가 전남 여수의 예울마루 무대에 선다. 세종솔로이스츠는 연인에 대한 연모와 사랑을 담은 노래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세레나데를 선보인다. 김동명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탄생한 한국 가곡 '수선화' 등 안타까운 마음을 애절한 선율로 표현한 노래들을 들을 수 있다.

일시 11월 30일 오후 7시
장소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예울마루
문의 ☎ 061-808-7000

얄미운 사람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얌체운전, 휴지통에 버리고 가실게요~

진정성 있는 책을 꿈꾼다

경기 파주 헤이리의 한 북카페.

"책에는 모든 과거의 영혼이 가로놓여 있다"고 말한 이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이다. 그렇다. 책에는 모든 과거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혜와 정보 등이 들어 있으며, 그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의 일용할 양식이 들어 있으며,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들어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철학자이자 비평가였던 바슐라르는 "책은 꿈꾸는 걸 가르쳐 주는 진짜 선생"이라고 말했다. 또 고대의 수사학자인 키케로가 언급했듯이 "책은 소년의 음식이 되고 노년을 즐겁게 한다. 번영의 씨앗이며, 즐거움의 원천이다. 또 여행할 적에는 야간의 반려가 된다."

우리가 책을 통해 얻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선 책을 읽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고문진보>에도 이미 나와 있지 않던가.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존귀해진다"고 말이다.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들고,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들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고 했으며, 철학자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아르헨티나 출신의 저명한 작가 보르헤스는 <책>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책이다. 다른 것들은 신체의 확장이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시각의 확장이고, 전화는 목소리의 확장이며, 칼과 쟁기는 팔의 확장이다. 그러나 책은 다르다. 책은 기억과 상상력의 확장이다."

<분노의 포도>의 작가 존 스타인벡은 20세기 중반 "현대에 이르러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영화와 레코드 등과 겨루면서 그래도 책이 그 귀중한 특성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고, <장미의 이름>을 쓴 움베르토 에코는 20세기 말 팝과 록의 시대에도 여전히 클래식이 살아남았듯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고전적인 종이 책의 의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2010년대의 젊은 작가 정용준은 달리 생각한다. '허공의 텍스트'(<21세기문학>, 2013년 가을호)에서 종이 책의 죽음을 예감한다. 가상적인 허구 상황에서 정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종이 책 제작을 금지하고, 각 도서관에서는 모든 책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런 상황에 직면한 작가의 고뇌를 그린 소설인데, 여기서 작중 작가는 "책은 문학의 육체와 같아. 둘은 태초부터 이어져 있는 영혼의 쌍둥이 같은 거"라고 말한다. 그런 입장에서 많은 작가들이 종이 책의 부활을 위해 골몰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런데 작가의 관심은 문학을 담을 육체적 매체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의 내용이 과연 종이를 써야 할 만큼 가치 있느냐 하는 '진정성'이라는 반성에 이른다.

문학 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참으로 많은 책들이 나온다. 종이 책이냐 e북이냐의 구분을 넘어서 우선 책의 진정성이 선행되어야 할 터이다. 평균적인 혹은 하향 평준화된 책이 많이 나올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인용한 여러 선학들의 책 예찬 담론들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 있다. 기억과 상상력의 수준과 품격을 알게 하는 책들이 추운 겨울철 따스한 꿈을 꾸고자 하는 독자들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의 진정한 꿈이 계속될 수 있을 터이기에 말이다.

글 · 우찬제(문학평론가 · 서강대 문학부 교수)